朝鮮日報 夕刊
三十一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飛行機製造能力 蘇聯, 佛國의 廿倍

年産五千臺, 從業員二十萬 佛蘭西視察者談

【巴里廿九日發同盟】蘇聯의 航空機製作 工場 實地視察次 莫斯科에 赴한 佛國視察團 一行은 即日 佛國에 歸還하엿는데 一行中의 飛行機製作者 루이브레겐氏는 蘇聯邦의 飛行機製造業 現狀에 關하야 如左히 말하엿다

蘇聯의 飛行機 製造工場의 飛行機, 發動機, 附屬品等의 製作能力은 佛國의 約二十倍로 工場의 機械類는 主로 英國, 獨逸로부터 供給되고 잇스며 飛行機 製作에 從事하는 勞働者 總數는 二十萬에 達하야 三交替制를 實施하고 잇는데 飛行機年産은 五千臺로 實로 巨大한 飛行機製作計畫을 遂行 하고잇다 (寫眞은 스탈린氏)

西班牙北部一帶 激烈한 戰鬪繼續

【앙데卅日發同盟】北部地方一帶는 二十九, 三十兩日도 繼續하야 叛軍과 政府軍間에 激烈한 戰鬪가 反覆되엇다 叛軍北軍所屬空軍은 三十日未明 政府軍이 死守하는 산·마르샬, 과다루·베페 要塞에 對하야 再次猛烈한 空爆을 敢行하엿다 政府軍도 곳 應戰하야 마츰내 敵機를 射落하얏다, 또 政府軍飛行機는 二十九日午後 叛軍의 重要據點 팜플로나市를 爆擊하야 多大한 損害를 與하엿다 政府機關紙고라 레·푸프라르紙報道에 依하면 叛軍飛行機는 二十九日午後 로로사近郊三十키로의 에바르市 政府軍需工場에 爆擊을 加하야 無辜한 市民에게 多大한 損害를 與하엿다고한다 또 政府軍은 三十日朝叛軍이 依據한 메스카市를 攻擊하야 敵軍에 重大打擊을 與하얏다고 報道되엇다 北部의 要衝 귀푸스코아市의 報道에 依하면 叛軍部隊는 三十日午前 벨코인을 占據하고 政府軍이 所持한 重砲機關銃彈藥等 多數를 鹵獲하얏다고한다

南軍依然對峙

【앙데二十九日發同盟】北部叛軍은 二十八日도 繼續하야 이룬總攻擊을 敢行하고 特히 夜間에 屢屢 決死的突擊을 하엿스나 政府軍도 頑强히 交戰하야 叛軍進擊을 阻止하고 兩軍은 依然히 對峙의 姿勢를 繼續하고 잇다

一旦有事之時엔 八百萬大軍動員

陸軍大演習에 際해 무氏豪語 佛國政界에 大衝動

【앙데르卅日發同盟】엠마누엘皇帝陛下御統監下에 廿五日 알제리에서 行한 伊太利陸軍大演習은 卅日 終了하엿는데 뭇솔리니首相은 演習終了에 際하야 알제리에서 國軍將星 外國觀戰武官將士數千을 앞두고 得意의 熱辯을 휘날려 國軍의 威力을 高揚하야 가로되

吾人은 一旦 有事時에는 命令一下 八百萬의 大軍을 數時間內에 動員할수잇다

는 旨를 明白히하엿는데

伊太利國軍은 에디오피아戰爭以前에 比하야 훨신 强力해젓다 그러나 우리는 부질업시 好事하지안는다 될수잇스면 언제든지 平和를 願하고 世界平和를 爲하야 協力할 用意가잇다

고 强調하엿다

【巴里卅日發同盟】뭇솔리니首相은 三十日 아베르리노에서 「命令一下數時間에 八百萬의 大軍을 動員할수잇다」는 旨의 豪語를 한것은 곳 巴里에 傳하야 相當한 衝動을 惹起하고 特히 右翼方面에서는 伊太利의 軍事的整備에 露骨한 反感과 危惧를 示하야 佛國國軍은 적어도 스피-드能率과 整備에잇서서 獨伊兩國에 對抗치안흐면 안된다고 要望을 發하엿다 他方 政府側에서는 緘默하고 公式批評을 避하고잇스나 獨伊와 接近한 關係에 鑑하야 뭇솔리니首相의 豪語는 獨逸의 在營年限延長에 對한 佛國의 指揮에 一層 拍車를 加할것이라고 보고잇다 目下佛國東南의 伊太利

左翼政權과 斷交 日本駐西公使에 電命? 叛軍首腦의 放送

【세빌리아三十一日發同盟】세빌리아叛軍首領데라노將軍은 三十日 세빌리아放送局으로부터 「日本政府는 西班牙政府에 駐箚公使에게 對하야 左翼政權과의 關係를 斷絶하도록 要請하엿다」고 聲明하야 센세이슌을 起하엿다

를 三十一日外務省에 非公式으로 通告해왓다 參事官모리나氏는 當分 그대로 東京에 殘留할터이다

【東京電話同盟】故國西班牙政府에 爆彈聲明을 投擲하야 世界의 視聽을 一身에 集中하고잇는 駐日西班牙公使비고우氏는 二十九日 마드리드政府로부터 罷免되엇는데 叛軍프랑코將軍의 召集도잇서서 政府軍 今回의 處置에 憤然히 歸國키로 決定하고 九月一日 橫濱出帆의 프레시덴트·오브·크리-브란드號로 米國經由 歸國하야 叛軍에 參加키로되엇다 特히 命令棄權公使의 聲明書를 發表하야 叛軍에 參加를 決意하고 夫人 米人 夫人을 鄕里에 돌려보내고 프랑코將軍 麾下에 參加하게되리이다 三十一日朝 麻布市兵衛町에잇는 西班牙公使館을 訪問하니 비고우公使를 爲始하야 모리나參事官, 카스티리오領事等은 外部의 出入을 嚴戒하고 大使館은 入口에서 버리고 一步도 들어가지안코 아모말도 할수업다

西班牙公使館員 叛軍에 參加코저

【東京電話同盟】西班牙政府를 拒否하고 叛軍支持를 聲明한 駐日西班牙公使 비고우氏는 二十九日附 本國政府로부터 罷免의 通告를 밧고 一日橫濱出帆의 프레시덴트·오브·크리-브란드號로 金浦 米國經由 西班牙의 叛軍에 參加키로되엇는데 나 바리시에 向하기로되엇다는 旨

曠古未曾有의 天災에 非常對策이 肝要

國家的動員으로 根本的救濟를 期待 大風水害와 當局의 處置

今次의 風水害는 實로 曠古未曾有의 慘禍이다 八月十二日 死傷一千七百餘에 家屋의 全流失, 全半壞等이 約五萬戶에 達하야 朝鮮에서는 古今에 그 類例가 업는 것은 勿論 昭和九年大阪을 中心한 南部와 中部地方의 被害數字에 比하야 乙丑年大水와 다시 二十七日의 颱風襲來로 因하야 慶南北, 江原의 被害地의 慘禍는 다시 甚하다 三十一日午前十時現在 人命의 死亡 一千九百餘, 行方不明 五百餘, 負傷 一萬三千餘로 近似한 數字를 表示하야 當局의 發表는 더욱 増加하고잇서 被害의 救濟는 局部的 問題가 아니고 實로 全朝鮮的 問題이어서 本來各方面人士가 總動員하야 對策을 考究하여야할 바이지마는 이는 民間의 救恤的 援助도 必要하지마는 根本的 對策이 必要되고 잇다 當局의 本對策이 必要되고잇다 當局의 緊急救濟策으로는

◆死亡者를 내인 被害者에게 先死亡者에 對해서는 葬儀費, 家屋全失에 對해서는 假屋의 建設, 衣類等을 配付하고 또한

富永學務局長談

當局의 救濟로는 食糧의 給與, 寢具衣服等을 配付하고 또한 ...

大竹內務局長談

矢島農林局長談

伊藤警務課長談

南總督謹話

今回 朝鮮內各地의 水害에 對한 御內帑金 御下賜의 御沙汰를 拜하고 南總督은 三十一日 如左히 謹話하엿다

七月下旬부터 八月中旬에 亘하야 全朝鮮各地에서 斷續的豪雨가 잇서 河川氾濫, 山崩을 生하야 平安南道, 咸鏡南道를 除한 各道에 相當히 激甚한 被害를 蒙하야 慘禍는 甚大하야 死傷者及行衛不明者 一,一四一名, 家屋流失, 倒潰及床上浸水三二,〇八六戶, 船舶의流失, 行衛不明, 沈沒及破損二二〇隻에 達하는 狀況이엿습니다 이慘狀이 天聽에 達하자 畏多하옵게도 天皇 皇后兩陛下께옵서는 매우 此等蒼生의 窮狀을 御軫念하옵시어 御救恤의 思召로부터 今回多額의 御內帑金을 御下賜하옵시는 御沙汰를 拜하엿습니다 天恩의 廣大하심은 實로 恐懼感激하야 마지안는바입니다 被害所로서는 罹災民에게 傳하야 同時에 官民이 努力하야 天恩에 奉答하기를 期하는바입니다

白頭山探險記

百名一團冒雨發 白頭探險第一步

⑩ 徐椿

所在處인 西便을 向하야 一行은 農事洞으로부터 떠낫다 行列의 順序는 最前列警備隊, 다음 隊員, 다음 馱馬, 馬夫及人夫, 다음 警備隊의 順으로 느러섯다

우리가 것고 잇는 길은 마치 저 沙上에 배암 지나간 자리 만치 가늘게 뚤린 山間細路다 形形色色의 雨裝을 쓰고 人馬合 一百十名이라는 多數가 複雜한 長蛇陣을 이루니, 앞을 보아도 可觀이오, 뒤를 보아도 可觀이라고밧게 다시 表할 말이 업다

일로부터 人間世界를 下直하고 白頭險路五百里途程의 第一步를 내짓는것이다 이瞬間을 最後로 人間世界에는 다시 나와 보지 못할는지도 모르는것이다 이때 各사람의 不安恐怖의 心理는 이雨裝의 襤褸보다도 더 複雜할것이며, 퍼붓는 豪雨보다도 더 悲慘할것이다

十日午前七時 豪雨를 무릅쓰고 白頭山은 사람의 種子는 一旦 大自然의 森嚴에 對하야 人間世界의 溫床的安樂에 젖은 心理로부터 大自然에 對한 恐怖感으로 고치거에 於此한때문이다.

▲冒雨出發

人間世界 뒤에두고
深山길을 차저드니
살에닷는 풀닙헤도
몸소름이 소사친다.
하늘가득 怒氣띄고
모진비빨 퍼부으니
山間細徑 또랑일워
발등까지 숨겨든다.
압흘向해 한숨쉬고
고개돌려 바라보니.
하로人님 農事洞도
보내기를 애끼는듯.
白頭山길 險타더니
果然虛言 아니로다
첫발부터 이러하면
五百里길 어이가나
가자가자 그냥가자
轉忘말고 어서가자
丈夫한번 떠난길에
險難障碍 가릴것가
써을峰 神武峙에
虎豹豺狼 나오거든
무슨峰 天地가에
비바람 三려치라.
이몸이 얼고엽어
定界碑 대신서들
白頭探險 初一志야
가실줄이 잇슬것가

人間世界에 잇서서의 安逸的心理狀態로부터 大自然의 森嚴相에 對한 不安恐怖의 느낌으로 一旦, 轉換되다가 다시 如何한 險難障碍가 잇슬지라도 不撓不屈하겟다는 一大勇氣를 끄러내어는데까지의 心理的轉換過程은 대개 이와 가트다.

이날에 一行은 行列을 지어 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心理的轉換過程을 한번씩 닭지내엿슬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것은 恐怖로부터 勇氣의 心理的過程은 個人의 力으로 可能할 배아니요, 반드시 團體의 힘을 비러가지고야 可能한 것이라는 一事다. 徐椿 一個人이 白頭山探險을 單獨으로 決行한다고 잡고 深山幽谷의 森嚴相을 對하야 恐怖戰慄의 마음을 一瞬間이라도 떠여버릴수가 잇느냐?하면 그것은 到底히 不可能한 일이다. 이一行은 人馬合一百十名이라는 多數로 組成된것이기에 多數의 힘을 서로 밋는 마음으로 거기 安心이 생기고, 따라서 힘과 勇氣가 생기어 이러한 大冒險的行爲를 挫折업시 決行할수가 잇는것이다.

넷사람의 말에 밤에 山中을 단이다가 범을 맛나서 하로人밤을 지나는 동안에 머리가 하야케 세엿다는 말이 잇거니와 이것은 大自然에 對한 恐怖觀念에 依하야 一夜之間에 幾十年分의 心身을 消耗하엿다는것을 意味하는것이다.

今番 우리一行一百餘名이 그러한 危險한 길을 단이면서도 何等 恐怖心이 업시 安心하고 단닐수가 잇는것은 全然 이團體의 힘에 잇섯다는것은 玆에 贅言을 거듭할 必要조차 업는것이다. 서로 各各 서로를 밋는 마음, 이 마음은 大自然征服의 偉大한 原動力이라고 할것이다.

帝政實現與否는 一般投票로 決定

叛軍政府樹立後의 政策을 宣明

九月中旬까지 伊太利에 對한 一種의 示威하고 大演習을 行하고잇다

革命成功까지 戰鬪繼續

【부르고스卅九日發同盟】부르고스叛軍首腦部가 發表한바에 依하면 叛軍首腦카바네야스將軍은 廿九日 如左히 聲明하엿다

西班牙에 單一한 革命政府가 確立되기까지는 戰鬪는 곳까지 繼續될것이다 今回의 動亂의 結果 西班牙가 四分五裂될것이아니냐하는 恐怖는 杞憂로 그러한일은 업다 吾等은 말키스트의 虐政으로부터 國民을 解放한다는것을 第一의 念願으로하고잇다 우리는 叛亂의 目的을 達成한後에는 西班牙에 君主制를 復活할는지 그與否에 對해서는 人民投票로할 決意를 가젓다 戰鬪는 今後 그리길게끌지는 안흘것이다

叛軍의 標識는 王政時代의 國旗를

【부르고스卅日發同盟】부르고스叛軍國防委員會는 卅日 赤色에 金色을 配한 王政時代의 國旗를 叛軍의 標識로한다는旨를 如左히 聲明하엿다

王政時代의 國旗로 西班牙의 光輝잇는 歷史復活을 企圖하고 國家的大義名分에 依하야 結合된 我等이 우리의 榮譽를 表徵하는것이다

「戰爭의 人道化!」 駐西大公使會議

【산쟝·도·뤼-즈三十日發同盟】目下 佛國앙데에 避難中인 마드리드駐箚 亞爾然丁大使 마서라氏는 三十一日 앙데의 假官邸에 西班牙駐箚各國外交團會議를 招集하야 西班牙內亂에 關하야 戰鬪의 人道化를 圖하기로 決定하고 三十日 英, 佛, 伊, 獨, 威, 和, 波, 체코, 瑞의 十個國, 各大公使에게 招請狀을 發하얏다 右에 關하야 마서라氏는 如左히 말하엿다

나는 骨肉이 相食하는 西班牙內亂을 座視할수업시 各國大公使가 協議한後 政府及叛軍에 對하야 戰鬪를 人道化하도록 要請할 心算이다 우리는 또 捕虜交換

獨逸包圍線强化

波蘭의 對佛答禮使 스將軍巴里에 到着

【巴里三十日發同盟】佛國陸軍參謀總長 가메랑將軍의 波蘭訪問에 對한 答禮使인 波蘭의陸軍首腦 스미그리將軍의 一行은 三十日 달라디에陸相 델보外相 가메랑將軍 其他佛國陸軍의將星多數의 出迎裡에 巴里에 到着하얏다 今月中旬 가메랑將軍의 波蘭訪問으로 佛波兩國의 軍事的提携가 緊密化하야 나치스包圍線을 强化하게되엇다고 傳하는데 今回의 스미그리將軍의 巴里答禮訪問으로 兩國關係는 益益 緊密化하게되엇다고한다 三十日의 巴里各紙는 大大的으로 一行의 歡迎記事를 揭載하야 스미그리將軍의 巴里訪問은 獨逸牽制를 위한 軍事的으로 連絡시킨 證左라고論하엿다

트로츠키秘書二名 諾威政府捕縛追放

【오슬로二十九日發同盟】諾威政府는 二十九日 蘇聯反幹部派巨頭레온트로츠키氏의 秘書佛國人二名에 對하야 各其國內追放을 命하얏는데 右佛人二名은 命令에 服從치아니하기때문에 捕縛하야 追放處分에 附하엿다 一方政府當局은 트로츠키氏에게 對하야 電話로서 今後通信一切을 嚴禁하고 違反할 境遇에는 嚴罰한다고 通告하고 同氏住宅에 警官을 增員하엿다 그러나 諾威政府는 同氏를 逮捕하야 蘇聯에 返還할 意思는 업는모양이다

民有國營? 國有國營?

國有國營案에는 藏相은 絶對反對 政友는 國有國營贊成

電力統制問題

【東京電話同盟】馬場藏相은 三十日午後十一時十七分 那須別邸로부터 上野驛着 歸京하얏는데 電力國營問題에 關하야 如左히 말하엿다

電力을 國營 또는 民營으로하는 現狀대로 放任할수업다는것은 누구나 一致된 意見이나 그것에 關해서는 今日의 經濟體系를 ...

民有國營에 落着? 遞信省當局은 確信

【東京電話同盟】來月五日의 第二回會議는 電力國策調查會의 ...

不再錄號外發行

本社는 三南及江原道水害事件으로 不再錄號外를 發行햇습니다

八面

新譜 九月

新民謠 단풍이들대 李花子
야루江打鈴 金貞九
(一〇四三)

流行歌 放浪의 黃昏 / 어화 하늘에
新民謠 뗏대로 노차다 / 流行歌 江물어러 七百里
俗謠 놀량 豐年打鈴
西道雜歌 黃海道 산念佛 / 색씨打鈴
俗謠 漫謠 영감마누라 / 간지打鈴
春香傳 박석티
伽倻琴竝唱 春香傳 夢中歌
短歌 秋月江山
雜歌 꾀꼬리 한쌍

漫談 영감마누라 金周鎬 李花子 1038
宣傳盤 50錢
고리아레코드

史上未曾有의大天災・死者三千을突破

江原道水害去益慘酷

襄陽邑은全滅狀態 死亡失踪五百名 家屋被害는不知其數

【大浦支局特電】 이십칠일에 쏘다진 폭풍우로 말미암아 강원도양양(襄陽)읍내는 전멸상태이며 군내각면에도 피해가 상당하리라고생각되나 교통두절로 상세불명이며 다삼십일까지 군내각지에서 확실히 판명된 사상자 행방불명자 수만도 오백삼십칠명의 다수이며 가옥의 류실도괴는 부지기수이며 농작물은 전멸상태로 리재민의수는 수천에 달하며 군내각지에는 통곡성이 진동하고잇다

【三十一日午前六時警務局着電】 강원도강릉(江陵)군과 양양(襄陽)군하에는 이십팔일오전두시쯤부터 풍속십륙메돌의 태풍과 호우가 엄습하야우량은 삼시간에 삼백미리를 돌파하엿다 강릉읍내는 남대천(南大川)의 둑이 문허지며 물이 드리밀어서 거의 전멸상태에 빠지고 양양읍내도 이십팔일오전비시쯤에 남대천의 물이팔메돌이나 부르며 해일까지되야 독사백메돌이 끈허지며 물이 드러밀어 읍내는물론 그근처일대는 수국화되야 그야말로 전멸상태에 빠진현상이며

【警務局着電】 삼십일오전여섯시 강원도경찰부로부터 경무국에 도착한바를 보면 강원도내의 풍수해는 양양(襄陽)강릉(江陵)고성(高城)정선(旌善)삼군이 가장심한데로 피해상황은대개 다음과갓다

▲人命被害 死者五四四名 ▲負傷二七一名 ▲行方不明六六六名 ▲家屋被害 流失一九七四戶 ▲倒壞二三一九戶 ▲浸水九八六九戶 ▲船舶 流失及破損 三五九隻 그리고 이것을 군별로 나누면 다음과같다

襄陽郡
▲人命被害 死者一五二名 ▲負傷一四名 ▲行方不明一二四名 ▲家屋被害 流失四二九戶 ▲全潰一三一戶 ▲半潰七八戶 ▲浸水五〇戶

江陵郡
▲人命被害 ▲死者一一六名 ▲負傷六七名 ▲行方不明二〇五名 ▲家屋被害 ▲流失四七七戶 ▲倒壞五五一戶

旌善郡
▲人命被害 死亡 三五名
▲家屋被害 流失 八七戶
▲全潰 二九戶 ▲半潰 三七戶
▲浸水 一四五戶
▲浸水 一六二八戶

高城郡
▲人命被害 死者四七名 ▲負傷者六五名 ▲行方不明二名 ▲家屋被害流失一七八戶 ▲全潰六六戶 半潰一〇三戶 ▲浸水八二〇戶

逐日判明되는 今番水害慘狀

최근십년동안에 가장수해가 참혹하든 지난소화오년의 피해상황을보면 ▲死亡者 七三四名 ▲負傷者 一、八八六名 ▲行方不明者 一〇五七名이엿고 家屋倒壞 四、五八〇戶 半壞 六、二五九戶 流失家屋 二、五八七戶 浸水二四、二二一戶 이엇다 그런데 이번재이차 풍수해와리 번재일차 풍수해에잇서판명된피해집계를보면 ▲人命死傷者四、六一八名 ▲家屋被害二三八、三八一戶 이어서 금번당차의 풍수해피해가 그얼마나 참혹한것인지 수짜가증명하는바이다 그런데 아직 도통신과 교통이 불통되여잇고 자세한것은 알수업고 서울로부터 경성으로판명 되는중이다

江陵死傷二百餘名 漁船被害百萬圓

襄陽三陟兩郡도全滅狀態

【江陵支局長金興鎭發電】 미증유의 강릉수해상황은 루보한바와 갓거니와 삼십일까지 판명된바에의하면 인축피해로는 사자일백이십팔명 부상자륙십칠명 행방불명 이백십일명이며 가옥류실백칠십칠 도괴칠십팔 반괴삭백구십삼 침수가옥이 일천륙백 아서활동에 달하며 농작물피해는 논(畓)이 류실된것이 백삼십이정보 매몰(埋沒)이백이정보 밧(田)류실 백정보 매몰 사백팔십칠정보 침수 일천사백오십정보에달하며 산림피해는 발동과선 류실어 류적 삼십칠척 파손 삼십팔척으로 피해총액이 백만원에 달할모양이나 지금도 계속강우되므로 더 증가될것으로 생각되는 그라고

강릉읍내리재민 삼천여명은 보통학교강당 긔독교회당에 각각수용 구제중이나 호우는아직 끈치지 안허 전렴병발생의 렴려가 잇다 그리고 린접양양(襄陽)삼척군(三陟郡) 내의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심하다고하며 양양읍내와 삼척읍내는 전멸상태라고한다 강릉(江陵)의수해대책에 대하여서는 이십구일읍사무소(邑事務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그에대한 토의가잇슨결과 다음과가티 결의하엿다

一、수해발생한날부터 이주일동안 피난민에게주먹밥을배급할것 二、것이비용 천일백원을게상할것 三、남대천(南大川) 제방을곳수리할것 … 전신전화는 삼십일오후여섯시 겨우모다 개통되엿다

附近一帶에繼續降雨

京釜線開通

경부선의 불통되엿든철도는그 후 천긔회복과 아울러 철도국 인부들의 노력으로 완전히 복구되여 개통을 보게되엿다 삼랑진—원동(三浪津—院洞)사이는 삼십일오전 열두시 오십분부터 그리고 삼랑진—밀양(密陽)사이는 가튼날오전 열두시삼십분부터 각각개통되엿는데 아울러부산(釜山)에 도착되는 일등 제편의 승객은 부산을 오전여덟시 십분 떠나서울로온 림시 급행으로 사백명가량을 태워가지고보내왓고 남어지 손님은부산을 오전여덟시사십오분에 떠나는 다섯째렬차와 및오후열두시에떠나는아홉째 렬차에 수용될터이라한다

天氣予報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흐리고 小雨가 잇슬터이며 明日은 흐리다 京城金晶도갓다。
昨日 最高 二七度
同 最低 一九度三
今朝 最低 二〇度六
今日 正午 二三度

眼科診療 醫學士 魚 瀓 京城鍾路三丁目八〇ノ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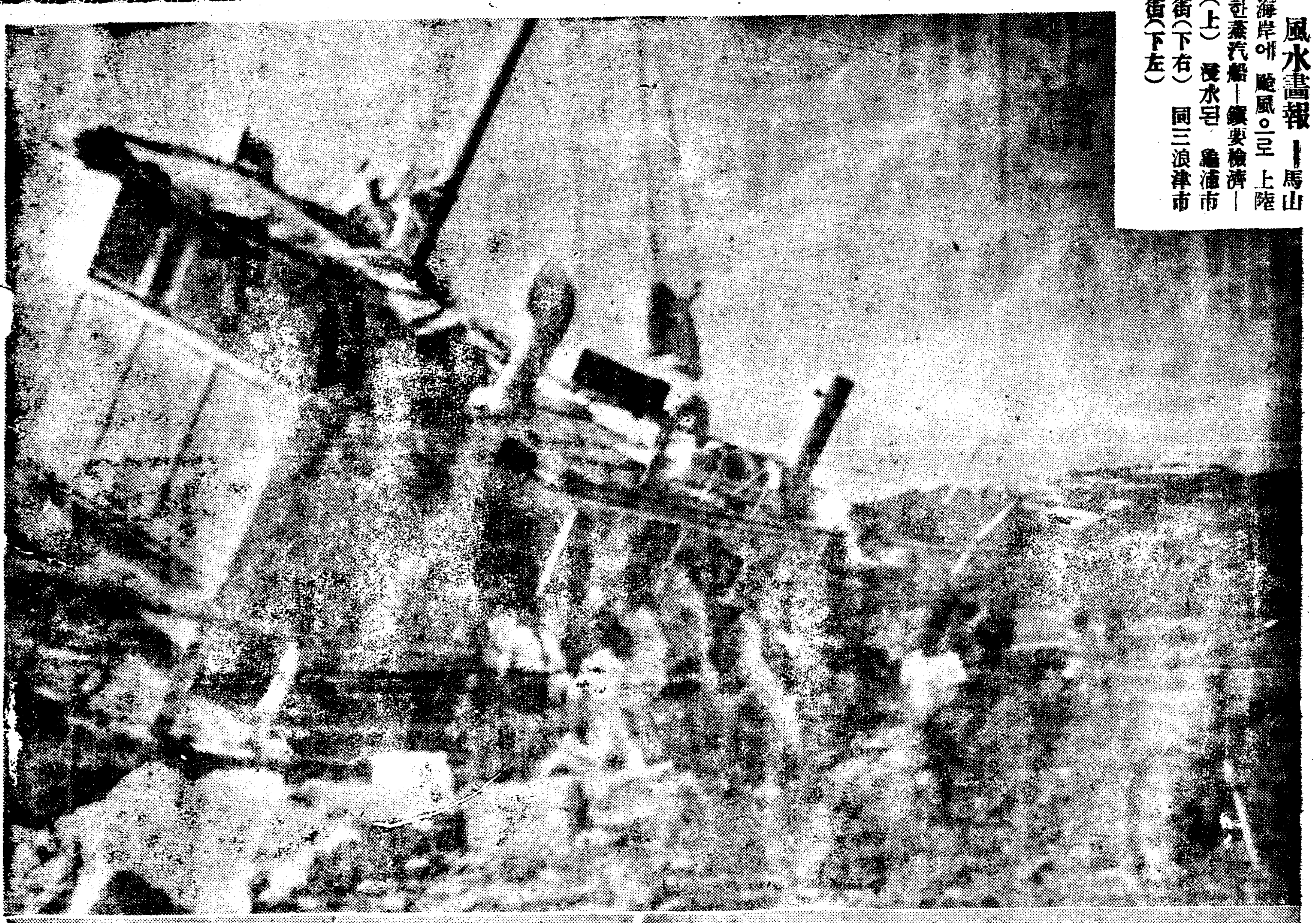
今夜

白頭山探險映畵及報告講演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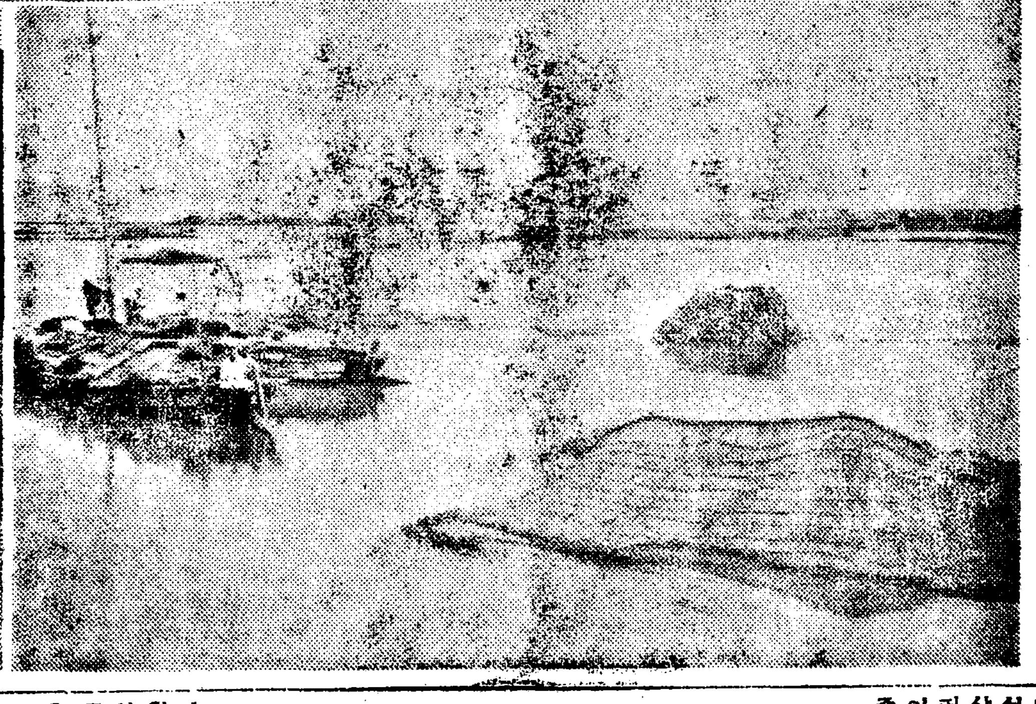
演士 徐椿、李相昊 (番外 토키映畵「恐怖의姬」全八卷)

午後七時半 於本社大講堂

第二日



風水畵報 —馬山海岸에 颱風으로 上陸한泰汽船—鎭要檢濟—(上) 浸水된 龜浦市街(下右) 同三浪津市街(下左)



颱風一過後三千浦 礎石까지뺏은狂波

避難當時를물으니 몸서리말치는住民 絶望과落膽에悲歎뿐

【三十一日三千浦에서 本社特派員 李鍾模發電】 통영(統營)에서 밤을새여가며 자동차에몸을실고 삼십일 먼동이틀때 삼천포에도착하야 제일피해가심한 삼천포읍동금리(東錦里)서금리(西錦里)일대를 도라보니 광막한바다에서 밀여오는 산뎀이가튼 물결이그대로 바다가에잇는집을 습격하야 이백여호의인가는 모조리쓰러저버리고 게속하야 엄습하는물결은 집터까지 훔처가버려 그야말로 폐허(廢墟)의참상을 이루고 더욱이와가티 흉독한 손해를 엽은사람들은 거이 비면으로 여기저기 흐터저 잇는집잇으며 오래기를 주으며 눈물에 저저잇다 이피난민들은 지금로죽을 하며 긔한에 떨고잇는데 그자는 이십칠일밤에 이러난태풍당시의 상항을무르니 그들은너무나 놀낫든뒤라 그런지 다못 몸서리만 치고잇슬때름이오 과가막혀서 대답조차 변변히못하고잇다 이비참한 정경을아루운피란민들은 언제어떠한일으로 복흥의길을 찻게될른지 다만 절망과락담에 울고잇슬뿐이다

家屋被害十萬餘戶 人命死傷五千名

卅一日午前十時警務局集計

▲忠北
死者 五一名
負傷者 二五名
家屋倒壞 三六六戶
半壞 三一一戶
流失 一二八戶
浸水 一、〇八〇戶

▲忠南
死者 二名
負傷者 一名
家屋倒壞 一三五戶
半壞 一六〇戶
浸水 一六九戶

▲京畿道
死者 無
家屋倒壞 一戶
半壞 九戶
流失 一戶
浸水 一、九四八戶

▲全北
死者 九名
負傷者 四名
行方不明
家屋倒壞 二三一戶
半壞 九二三戶
流失 九四戶
浸水 三六三戶

▲全南
死者 五〇名
負傷者 一五二名
行方不明 五七名
家屋倒壞 二三三九戶
半壞 無
流失 一〇一戶
浸水 四八二一戶

▲慶北
死亡 四一八名
負傷 一七〇名
行方不明 一五五名
家屋倒壞 三、三四七戶
半壞 三、六〇八戶
流失 九〇[illegible]
浸水 一四、一九三戶

▲慶南
死亡者 四五二名
負傷者 六四〇名
行方不明 一七六名
家屋倒壞 二〇、九七〇戶
半壞 無
流失 一三五七戶
浸水 三、五五九戶

▲江原道
死亡者 五四四名
負傷者 二七一名
行方不明 六六六名
家屋流失 一九七四戶
家屋倒壞 二三一九戶
浸水 九八六九戶
船舶流失、沈沒、破損 三五九隻

▲咸南
[illegible] 一戶
[illegible] 六[illegible]

第二次水害小計

死亡者 一、五一六名
負傷者 一、一八三名
行方不明 七六九名
家屋倒壞 二八、八八三戶
半壞 三、六六四戶
流失 四、三九一戶
浸水 五三、四八五戶

第一次水害小計

死亡者 四二二三名
負傷者 五七二名
行方不明 一五五名
家屋倒壞 四三三九戶
半壞 五八〇六戶
流失 二三六三戶
浸水 三五四七〇戶

兩次累計

死亡者 五、七三九名
負傷者 一、七五五名
行方不明 九二四名
家屋倒壞 三三、二〇二戶
半壞 九、四七〇戶
流失 六、七五四戶
浸水 八八、九五五戶
船舶流失 三、三六〇隻
沈沒 二、六七隻

여러분이잘아시는 동양唯一 觀相師
新運命의開拓은姜南月先生에게
姜南月先生은 果然어떠한분인가 그는그의빗나는學術로 過去現在未來를 삼세를 판단하는 朝鮮이나은 天才이다
先生의指導와說明으로 謀事하야 幸福을享受하는이가 數千名에達함
姜南月觀相所 京城府昌信町六百八十七番地 東大門越便公衆便所前
生年月日時分明記送하면 詳細鑑定하야드림
강남월선생

社員募集
年齡二十五歲로四十歲까지 京城府內居住하시는분으로府內에서活動하실분을希望함 每日午前中履歷書持參面談을要함
日本生命京城支店外交部 鄭 鍾

官製煉炭價格廣告
九月一日以後左記와如히實施하오니 從前과가티愛用하여주시기를바라나이다
二穴煉炭 京龍間市內配達 一、〇〇〇個에對하야 金二十圓六十錢也
三穴煉炭 同 上 金十九圓六十錢也
マセック煉炭 同 上 十四叺(一叺正味七〇〇匁入) 金二十圓十錢也
昭和十一年九月一日
海軍燃料廠平壤鑛業部製造
三井物產株式會社京城支店發賣

三井大同炭發賣
一、中塊炭 京龍市內配達 壹噸에 金貳拾壹圓也
本品은山西省大同縣產出의高級有煙炭으로標準分析은左와如하다
水分 三・一〇 揮發分 二八・五六
固炭 六四・〇八 灰分 四・二六
硫黃分 〇・四三 發熱量 八二〇六 카로리ー
塊粒은一吋—三吋의大粒으로煤煙殘滓稀少發熱量絶大用途萬能이다
最近石炭商에下命하서서愛用하시기를바란다
全鮮一手販賣
三井物產株式會社京城支店

巡査看守(其他義錄)
朝鮮警務學會
京城府 …町一丁目三番地

◇學校大會發展◇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九月十日◇學則要二錢切手
第四七回 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三三六〇番)

◎新學期開始九月十日(晝夜)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學校入學又 編入學受驗準備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三三六〇番

株式會社 漢城銀行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電話本局(2)二一六一番 振替口座京城二一〇〇番
支店 出張所 京城南大門、本町、水標町、… 東大門、同本町、… 釜山、開城

長津地方紹介版(其一)

面積三百三十一方里 朝鮮最大道中 大郡
平均海拔三千尺의高原 最低零下四十度의氣候
하늘아래 첫洞里 處女長津의特色

長津은 半島의北塞僻陬로 고루엇는데 文物은아주보잘것이 업거니와五月白雪이꼭꼭쌓이는 海拔三千餘尺의高地帶 住民의大多數가아직 그들의土幕을 노점에 귀일 감자를常食으로하고 보수래를비비는原始的生活形態를벗지못한 地方이다 그러나 咸鏡南道의 最大郡으로서 三百三十餘方里에 廣大한地域을가지고 四萬餘町步의耕地는 七萬石의食糧을만들고 五十萬町步의林野는 年産額九十萬圓을 헤아리고 洋洋한물은끊임업시흘러서 四十萬키로와트의電力을내고 鬱蒼한山은 속으로들어가서 百千萬億無盡藏城川沙鐵의 金銀寶物을감추엇스며 到處에散在한寥寥草原은 數百萬頭의牛羊을먹일餌料를가지고서 富源으로보아도 다른地方에比하야 遜色이업거니와 人間科學의偉力은 處女長津에非常한變化를이르켜서 四百里萬疊山中에 浩浩蕩蕩한大湖水가 實現한同時에 鐵道船舶의 交通機關도 完備되고 따라서萬古億劫에 갇히엇든 莊嚴神秘한大自然이 비로소開放되여 名勝地로도 世界에 자랑하게되엿다 이것은 滿天下 實業家, 學者, 運動家, 養生家, 才子佳人의모다 認識할만한事實이라고생각하야 이에紹介版을發行하는바이다

長津江, 赴戰江, 虛川江水電은 모다이高原과 斷層崖를利用하는것이다 本郡은 이高原의 西南部에잇는데 北은厚陵嶺, 西는狼林山脈, 南은黃草嶺東은大岩山等 重岡疊嶂이四面을封鎖하고 餘脈이郡內에 盤延起伏하야七千六百餘尺의 蓮花山을이루엇다 그리고 長津江은 郡의南部黃草嶺에서 發源하야 北으로各面을 貫流하야 納延六十八里(六百八十里)를 지나서鴨綠江에들어가고 그支流인赴戰江, 烏臺江其他無數의 溪川이흐른다 그러나長津江上流流域의 平野를除하고는모다 高山幽谷이되여 耕地는매우적다 實로朝鮮의巴蜀이라하겟다 그러나 距今二百餘年前에老峰閔鼎重은 道伯으로와서 이곳을가르처 邊上重地, 山中樂土라하야 비로소 設堡하여서本郡의淵源을지어다

―行政區域―

面名	面所在地	面積(方里)	洞里數	人口	郡面間距離(里)
郡內	邑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上南	德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南	泗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西閑	柳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南	下碣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	大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下	踏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三三一、六五一	[illegible]	[illegible]	

戶口(昭和十年末現在)

一萬八百四十戶 六萬六千廿三人

年度	戶數	人口
大正十三年末	[illegible]	[illegible]
昭和四年末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末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末	[illegible]	[illegible]

右表와가티 十年間戶數六千九百八十四戶, 人口四萬二千八百八十五人의增加를示하엿다

面別現在戶口는

面別	戶數	人口
郡內	一、三九八	八、一〇一
上南	二、七三五	一六、〇二〇
中南	一、〇五八	六、四〇六
西閑	一、一二八	七、八三四
新南	二、六八三	一六、七八二
北	八四五	五、二二〇
東下	八九三	五、六六〇
計	一〇、八四〇	六六、〇二三

이것을 다시民族別로 表示하면

種別	戶數	人口
朝鮮人	[illegible]	[illegible]
日本內地人	[illegible]	[illegible]
滿洲人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本郡은 地廣人稀한 森林地方이었스나 平地帶에서 土地兼併으

位置及地勢

本郡은咸鏡南道의 西北部에位하야 東은豐山, 東南은新興, 東北은三水郡에接하고 南은咸州郡에隣하고 西南은平安南道寧遠郡, 西는平安北道江界郡, 西北은同道厚昌郡과境하엿스며 廣袤는東西十里(百里)南北이二十四里(二百四十里)總面積五, 一二三方粁八一(三三一方里六五一)咸南面積三一, 九七八方粁四七의一割六分에該當하야 道內二府十六郡中第一位를占하엿는데 咸南面積이全朝鮮十三道中第一인즉 本郡은實로最大道中最大郡이다 白頭山脈이 西南으로 다라오면서 厚峙嶺, 黃草嶺 白山等險山峻嶺이 泳淸連綿하야 그北西一帶에 二千七十餘方里의 臺地를 形成하엿스니 甲山, 豐山, 三水, 長津等郡을 高地帶 即蓋馬高臺가 이것이며 이山脈이 東南으로海에臨하여는 壯大한 斷層崖를이

氣象

氣溫 最高 二十三度 最低(一)三十三度或四十度
霜 自九月中旬或上旬 至五月中旬或下旬
雪 自十月上旬 至五月上旬或下旬
氷 自十月上旬至四月下旬
全朝鮮中最寒冷地로서 [illegible]

沿革

本郡은 옛날 卒本扶餘의一郡이다 (當時 扶餘族居三甲 長高原地沃沮族居定平黑石嶺以北之平地 其以南則地)濊氏에게 屬하엿다가 玄菟郡에 移屬된바 (或謂指實嚢蓋馬地) 樂浪玄菟의 境界인 單單大嶺은 即今의 雪寒嶺이다 (或謂指爲寒泰嶺)漢昭帝가 玄菟郡을 遼東에移한後 이高原地에 西蓋馬縣을 置하엿스며 高句麗의 版圖에 들어가서 卒本界라 稱하엿스며 渤海時代에는 率賓府屬地가 되엿고 渤海亡後에 女眞의 本據가 되엿는데 金의所謂曷懶路가 이高地帶이다 元이興하매 또元의 領地가 되엿다가 高麗末에 奪還하엿다 李朝初에 이르러서 郡內面 雪舘以南은 咸興에 屬하고 雪舘以北은 甲山에 屬하얏다가 世宗時三水郡이 設置되매 다시 雪舘以北을 三水에 讓하고 咸興에서 黃草嶺으로부터 雪舘까지의 地域을 漢厚仇非社라고 稱하얏다 그리다가 距今 二百七十年前 顯宗八年 丁未에 老峰閔鼎重의 狀啓에 依하야 中南面舊津里에 設堡하고 長津堡이라稱하야 現今의 上南, 中南, 西閑, 新南을 管轄하얏다 英祖三十四年 戊寅에 堡에 火災가 나서 西一里 猫峴 (괴버리)에 移하고 青山嶺이라 改稱하얏다 距今 百五十二年前 正宗 乙巳에 邑을 黃川에 移하고 鎭으로 昇格되야 僉使를 두다 同十二年에다시 長津都護府로 昇格되고 訓鍊大將 李敬懋가 經理하다 距今 百二十二年前 純祖乙亥에 三水郡의 一部와 合하야長津府를 만들고 現今의 新邑에 移하야 邑面, 富民, 上南, 中南, 下南, 新興, 舊邑, 北上, 北下, 東上, 東下의十一面을 이에屬하얏다 距今九十四年前 辛丑에 凶年으로 納貢及蠲約請을못한까닭에 縣으로 貶降되엿다가 十七年만인己未에 復府되엿다 距今四十一年丙申에 平安北道觀察府에 移屬되여 郡으로改하고 翌年에다시 咸鏡南道에復屬하엿다 大正三年行政區域變更에依하야 東上面을新興郡에割讓하고 十面을郡內, 上南, 中南, 南, 舊邑, 新南, 北, 東下의七面으로分合하엿다가 昭和六年四月舊邑面을西閑面으로改稱하다

寒心한敎育機關

一面一校完成이나 就學率僅八%
小學校는八百人當一校 普通校는一萬人當一校

長津의敎育은 매우 뒤떨어젓다 明治四十四年에 長津公普校가 設立된後 大正八年에私立中東學校가 設立되고 (十年末中南公普校가됨) 大正十年에 下碣公普, 昭和四年에 上南公普 七年에 東下公普 八年에西閑公普 十年에中南公普 北面公普가 次第設立되엿다 그러고 書堂은 純漢文만 敎授하다가 차차改良書堂으로變하엿다

◆公普校及簡易校

學校別	學級數	敎員數	生徒數
長津公普	六	七	四〇七
下碣公普	八	八	五七四
上南公普	二	二	八三
中南公普	二	三	一三八
西閑公普	二	二	一四六
同赤水簡校	一	一	八五
北面公普	二	二	[illegible]
同中江簡校	一	一	[illegible]
東下公普	二	二	八三
同雲山簡校	一	一	五五
計	二七	二八	一、六八六

◆小學校

學校別	學級數	敎員數	生徒數
長津公小	一	一	一〇
下碣公小	一	一	三
計	二	二	一三

右表를보면 一面一校는 完成된 모양이나 交通이 不便한 三百餘方里와 七萬餘人에 比하야는 너무도 過少하다 現在七個面은 四十七方里에 一校이며 一萬人當 一校인데 上南面가튼데는 人口一萬五千六百名中 學齡兒童 四千名을 超過함에 不拘하고 겨우 八十三名을 收容하는 二學級 四年制校一個所만 設置함은 참으로 遺憾이다 이에反하야 日本內地人은 郡內面 三三戶에 對하야 一校, 新南面二八戶에 對하야 一校設置하얏스니 實로 雲泥의差가잇다

◇書堂

面別	校數	敎員數	生徒數
郡內	四	四	一一六
上南	一四	一四	[illegible]
中南	四	四	[illegible]
西閑	四	四	[illegible]
新南	一三	一五	[illegible]
北	六	六	[illegible]
東下	一	一	[illegible]
計	四六	四八	一、七〇四

書堂이 四十六個所에서 一千七百名의 兒童을 敎授함에 不過하니 [illegible] 長津의 敎育은 寒心하다

交通及通信

本郡은 四面이 高山峻嶺으로 둘러싸힌 까닭에 十數年前까지도 外部와의 交通은 겨우 人馬만 通行할수잇드니 今日에는 咸興赴戰, 二等道路가 郡內三十四里를 通하고 下碣里로부터 平北前川에 이르는 三等道路와 葛田에서 漢岱에이르는 赴戰高原遊覽道路가 開通되여 各各定期自動車가 通行한다 그리고 長津惠山線間 二十六里의 二等道路도 改修中이며 長津滿浦鎭間 二等道路와 洪原中江線, 新豐江口線, 江口西於水里線等三等道路는 [illegible] 咸興長津線이 泗水까지인데 咸興中江[illegible]가 開通되는날에는 長津의交通은 完備될것이다 通信機關은 長津郵便所와 下碣郵便所가잇다

―宗教―

教別	布敎所數	布敎數	信徒數
基督敎	五	九	五三八
天道敎	一	三	八七
佛敎	一	一	四

言語道斷의 醫療機關
(醫師는萬人當一人弱 醫生은萬人當三人強)

昭和九年十二月現在 醫師七人 醫生二十七人이니 그때人口 七萬四千九百三十四名에 對하야 醫師는 萬分之一弱이되고 醫生은 萬分之三強이 되다 이것도 下碣, 長津邑가튼 市街地에 駐在하므로 廣大한 山間僻地에 散在한 六萬生命의 醫療問題는 참으로 寒心한일이다 그밧게 產婆五人 藥種商八人 賣藥商五十八人이잇다

神秘한大自然과 偉大한科學의結合
絕勝의赴戰高原
浩淼한大湖와幽邃한密林에 夏節의하이킹、冬期의스키等 世界無比의大行樂場

天地開闢以來 幾萬年間半島의 朔方絕塞에 封鎖되엿든 神壯雄秘한大自然이 二十世紀의 偉大한科學과 數百萬勞働者의 高貴한 피땀에 依하야 비로소 滿天下에 開放되엿스니 이것이 赴戰高原이다 赴戰高原은 黃草嶺, 赴戰嶺一帶의 分水嶺以北 海拔平均四千尺面積 約二百五十方里의 高汜한 地帶를 總稱함이다 詳言하면 長津江及支流인 赴戰江의 流域即長津郡의 新南, 中南, 西閑, 上南東下等五面의 一部와 新興郡의 東上面一圓의 地域이 赴戰高原이다 그런데 이 高原의 大部分이 長津땅일뿐아니라 東上面도 二十三年前까지는 長津땅이엿고 지금도 오히려東長津이란通稱을가지고잇스며 長津湖는 勿論이어니와 赴戰湖도 長津江의 支流로된것인즉 赴戰高原은 長津의것이다 그러면 高原의名稱은 局部的인 一嶺名을 떼여 世人으로 하여금그所在를 모르게하기보다 普遍的인長津二字를 取함이 조흘듯하다 그러나一部에서 이미赴戰으로 宣傳하엿기에 그대로 放任하다

名勝赴戰高原의一部인 長津湖와葛田堰堤

六百里두레青山속에 茫茫한長津赴戰兩湖

長津湖는 長津郡內에잇는데 周圍가 四百里(現在까지는三十二里) 長六十里되는 朝鮮第一의大湖水이며 赴戰湖는 東長津에잇는데 周圍二百里(十九里半)되는 朝鮮第二의大湖水이다 [illegible] 에따라서 湖水는 자라바(潮濕)가려 가리 잘잘하고 [illegible] 이리갈듯 저리올듯이 上下天光은 [illegible] 구비처 [illegible] 白雲青山이 그림자를 꺼꾸로비치는 景勝은 仙境인듯하다 여름의 船遊가 조쿠니와 겨울에 氷湖로 自動車를 疾驅하면 스피ㅡ드에 놀라게된다 겨우二十分間 六十里長湖를 突破한다

千古斧鉞不入地 秋物嶺의大密林

葛田里ㅡ漢岱里의 兩堰堤間百數十里에는 兩湖를 連絡하기爲하야 遊覽自動車線路가 敷設되엿는데 지금大型十五人乘低床式展望車 수十臺가 運轉된다 그 道路中間에는 標高一五二三米되는 秋物嶺이 가로막혓는데 勾配急한 羊腸曲路도 自動車는숨을헐떡거리면서 嶺上에 올라갓다가 도어넘어가기도하는데 嶺의東西 三十里間에 하늘을 가리운 大密林의 푸른빗은 돌고나가면서 새소리시내 소리를들으면서 高原의맛을 흠뻑맛보게되다

百花當夏一時發 千紫萬紅今始春

赴戰高原은 봄도 가을도업서 여름과 겨울뿐이다 꽃은여름한철에 一時에피다 石楠花그늘속에 피리꼬리 노래하고 金纓梅포기우에 큰나비춤을 추는것이 [illegible] 니와 줄기한濕原에는 高山特有의花園이열리어 鈴蘭, 菖蒲等金빛銀빛 자주빛, 眞紅, 軟粉紅, 藍碧各色꽃이 亂開하여잇다

學者從來連不絕 高山植物百餘種

赴戰高原에는 高山植物이百數十種에 達하고 이高原에만特產하는 것이二十餘種이됨으로 高山植物이 만키로 朝鮮第一가된다 近來植物學者가 多數히往來한다

高山性昆虫類 鳩鳥大의蝴蝶

赴戰高原에는 珍奇한 高山植物뿐아니다 特殊한 高山性昆虫類가만다 高山蝶中 遮日峰中腹에 잇는것은 비둘기만큼큰것이잇다

五千尺絕崖의綱索線昇降 黃草嶺白岩山眺望遠近景

赴戰高原出入에 東西二關門이잇스니 東은白岩山, 西는黃草嶺이다 黃草嶺은 標高一一九九米 七粁의 인크라인이 敷設되여 直高二千五百尺 懸崖를 昇降한다 三十度勾配의 急坂으로 자빠저올라갈때는 아슬아슬한것이다 黃草嶺에서 北을바라면 數百里高原의 山川雲物이 眼前에羅列하고 南을굽어보면 廣漠한咸興平野와 水天萬里의東海煙波가脚下에 展開되다 白岩山은 標高五千一百七十九尺의 인크라인을 昇降하고 在高三千尺의 絕崖를 昇降하다 白岩山에서 脚下로暗藍色의下界를 俯瞰하면 飄飄乎羽化登仙의概가잇다 朝暉夕照와 雲雨霽月에氣象이萬千으로變幻無窮함이 白岩山에서 보는 下界의勝狀이다 그리고여 그서 一條鐵索에매어달리는無蓋車를타고 急轉直下三千尺하다가 아래를나려보면 아슬아슬한것이다

沿路의名勝古蹟

赴戰高原으로가는 沿途에는名勝古蹟이만흐니 過次에 구경하면 一石二鳥의所得이겟다 (咸興에서三割引往復五圓가수)

―自五老驛至黃草嶺間―

▲眞陽鎭古城址 高麗尹侍中所築九城의一인데 五老里金盤山에잇다 鉢卷式城址 慈塘이라稱한다

▲黑林幽峽 龍水驛에서 下岐川驛까지의 地域인데 奇岩怪石 蒼鬱한樹林 黑林江의激流가奇觀이다

▲新羅眞興王巡狩碑 三巨驛前 小丘上에 잇다 西宗三年에 그斷碑를 黃草嶺에서 移建하엿는데 數年前土民이 그碑斷片을 江中에서發見하야 지금세면으로 元碑에부처노핫다

―自五老驛至赴戰嶺間―

▲九[illegible]社 中上驛附近에잇다

▲古城址 加平面元平面境界에잇는데 尹瓘所築이라한다 英州城에서 黃草嶺까지連互하엿다

▲元平原古戰場 千佛山驛附近인데 壬辰亂에柳應秀朴仲立等十二義士가激戰하든古戰場이다

▲遠慕堂 典洞驛附近山前에잇는데 文豪朴晦朴廷郁等을享祀하는데다

▲千佛山 千佛山驛西北三十里許에잇는 關北名山인데 開心寺와 白岳瀑布가잇다

高原一週코ー스

五老驛에서 右로 東北行하면 赴戰嶺을 넘게되고 左로 西北行하면 黃草嶺을 넘게되야 方向은 어데로 드든지 汽車ㅡ인크라인ㅡ汽車ㅡ遊覽船ㅡ遊覽뻐스ㅡ遊覽船ㅡ汽車ㅡ인크라인ㅡ汽車의順序로 複雜多端한 乘換에精神이 恍惚하게된다 右로가나 左로가나 高原구경은 되지마는 黃草嶺으로 들어가서 赴戰嶺으로 나오는데 漸入佳境의 味가잇다 咸興에서 일즉떠나면 當日구경하고 도라올수잇다 그런데 車船賃이 過多하야 大衆的旅行地가못됨이 遺憾이다

▲飛崖峙 咸州新興의境界에잇는데 文豪韓鐮羅等九會員奉安한데다

▲英州古城址 九城의一인데 咸興水組取入口도잇고 松魚鐵魚잡이로有名한곳이다

▲德安陵 豐上驛東五里行 加平面中上里에잇는데 零碎片瓦가尙存하다

▲古城址 豐上驛西北五里許에잇다

"一"로만 자랑하는 高原의 가지가지

一、赴戰高原은 高原으로 朝鮮第一高原
二、高山植物ㅡ百數十種 朝鮮第一
三、長津湖ㅡ周圍卅二里 朝鮮第一大湖
　赴戰湖ㅡ周圍十九里 朝鮮第二大湖
四、北水白山ㅡ海拔二、五二二米 朝鮮第二高山
　遮日峰ㅡ海拔二、五〇六米 朝鮮第三高山
　頭雲峰ㅡ海拔二、四八七米 朝鮮第四高山
　白山ㅡ海拔二、四七六米 朝鮮第五高山
　其他蓮花山, 小白山, 稀嘉峰, 猛扶山, 大紅山, 天佛嶺山, 東白山, 北山等十餘山이모다二千米以上의高山
五、赴戰江第一發電所ㅡ落差二千三百尺, 十三萬키로와트로高落差로世界一
　長津江第一發電所ㅡ十八萬五千키로와트로 東洋一
六、葛田堰堤ㅡ高二百尺混凝土九萬坪 大堰堤로日本一
　漢岱堰堤ㅡ高二百七十尺混凝土十八萬坪 高堰堤로日本一
七、赴戰江水路隧道ㅡ長七里直徑十二尺 長으로東洋一
　長津江水路隧道ㅡ長六里半直徑十四尺 大로東洋一
八、黃草嶺인크라인ㅡ急勾配로 東洋一
　赴戰嶺인크라인ㅡ長으로東洋一
九、白岩山驛ㅡ海拔一、五八〇米 日本最高의인크라인驛
　赴戰嶺驛ㅡ海拔一、三八〇米日本最高所의鐵道驛

五月白雪六月杜鵑 楓秋霜葉勝於春

五月下旬까지 눈이오는데가보통이다 躑躅芳草鶯花時에 高原에오르면 晩春風景이 可觀이다 杜鵑花는 六月初에 滿發하니 꽃이진다고 섭어말고 明春三月기달일것업시 今年六月에 赴戰高原으로 갈노릇이다 紅葉도 다른데보다 먼저단풍이되어 高山을 물드린다 [illegible] 丹楓時節이 더욱조타

避暑, 療養, 狩獵 하이킹、스키ㅡ、스켓트

夏節도 凉爽하야 避暑, 遊山하기에 適當하고 水土가 絕佳하야 療養하기에도조코 到處에 山獸가 棲息하야 古來有名한 [illegible]地라 狩獵家의 垂涎地이다 十月부터 翌年四月까지 數百里氷湖雪原은 스키, 스켓트하기에 조타 古來長津人은 [illegible] 猛獸를 잡는다

▲延禧宗遺墟 千佛山驛 十里許에잇는데 小金剛의稱이잇는 名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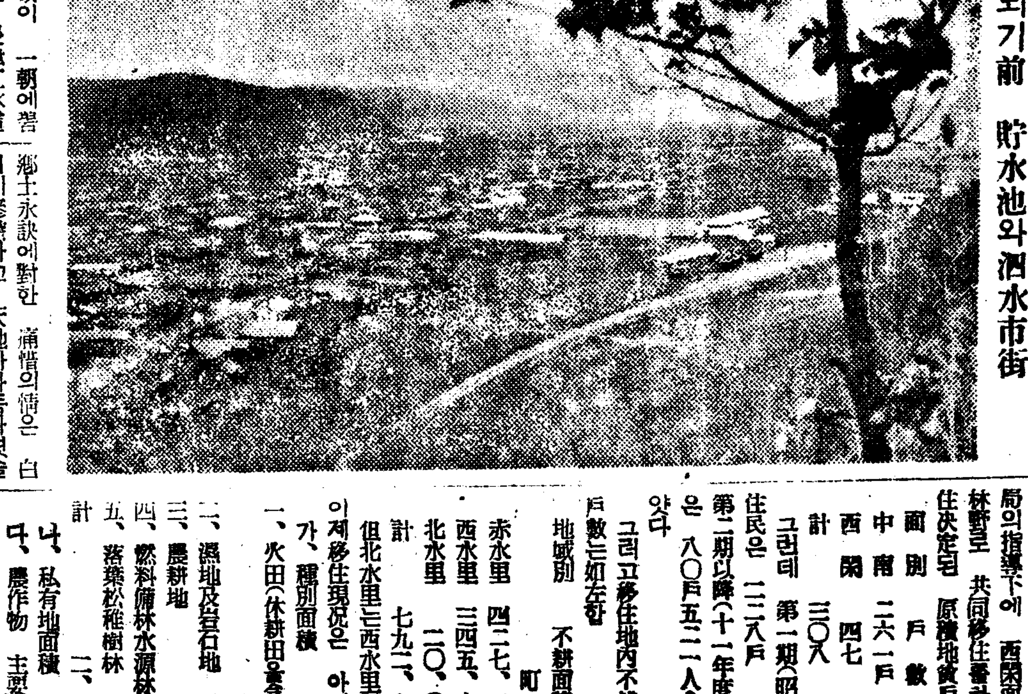
▲一邁岩 西新興ㅡ東興間城川江中에 突起한 [illegible]의 巨岩인데 [illegible]가

▲三釜淵 東興驛西北四里에잇 [illegible]

▲觀音坊 西新興驛西北四[illegible] 東元平面興元里에잇다 延氏는李朝開國功臣

長津水電이 비저내인 桑田碧海의大變
幾百年代代孫孫직혀오든 三千住民의鄕土別恨

옛날에 桑田이 碧海되고 碧海가 桑田된다 함은 百年을 주사이는 靑春男女의 警句로다 千古興亡의자최를 조상하는 文人才子의 로맨틱한 感懷로만알엇드니 오늘날人間科學의 偉大한힘은 이것을 現實化하엿다 即어제가리 人煙이 斷絕하고 鷄犬이 相聞하든 一千七百餘戶住宅이며 귀엽 갑지 못할 집고파내든田土이며 先人의 骸骨이 무친墳墓이며 어려서놀든 [illegible]와 자라서쉬든菓樹果亭等과 몃十年或은 몃百年祖先傳來의 鄕土文物가지가지가 모다자최업시 푸른물결이 늘올거리는 김고도넓은 푸른海에 잠기고 말엇스니 그들의



◇…浸水되기前 貯水池와泗水市街

萬坪의 廣大한地域이 一朝에 浸波浪浪한大湖로變한 長津江水電貯水池가 그것이다 이江山에 棲息하든 禽獸虫魚도 彷徨하던 舊居를 지내는 行人도 潸然한것이오 桑의 浩嘆을 禁하기어려거든 하믈며生於斯 長於斯한 三千住民의 感懷야果然어떠하랴 아들딸낫코살던 鄕土永訣에 對한 痛惜의情은 白日이 慘憺하고 天地가 아득하엿을것이다 이제 貯水池에編入한 地方은 左와갓다

◇…第一期沈水地

中南面ㅡ舊津里 通習水里一部 內洞里 瑞項里 新興里一部 新岱里 荷坪里 文川里一部 上興里一部 泗水里一部
西閑面ㅡ淸灘里 舊邑里 檜洞里一部 梅香里
上南面ㅡ葛田里一部

◇…第二期沈水地

中南面ㅡ高別羅里一部 通習水里一部 泗水里一部 新興里一部 文川里一部
新南面ㅡ下碣隅里一部
西閑面ㅡ檜洞里一部 柳潭里一部

以上 四個面十八個里內民有地面積이 約一千五百萬坪 住民約四百戶

第一期沈水始는 昭和十年七月二十日 第二期沈水는 十一年度 十二年度

西閑面奧地 移住民狀況

貯水池區域內住民의 大部分은 自力移轉이不可能한 貧戶임으로 當局의指導下에 西閑面奧地의國有林野로 共同移住를하게되엿다 移住決定된 原籍地貧戶는如左함

面別	戶數	人口
中南	二六一	一、六七一
西閑	四七	三一九
計	三〇八	一、九九〇

그런데 第一期(昭和十年度)移住民은 二三八戶 一、四六九人 第二期以降(十一年度以降)移住民은 八〇戶 五二一人으로 決定되엿다

그러고移住地內不耕面積及配當戶數는如左함

地域別	不耕面積(町)	決定戶數
赤水里	四二七、二三	一五八
西水里	三四五、六九	一五〇
北水里	二〇、〇〇	一五〇
計	七九二、九二	三〇八

但北水里는西水里에서通耕함

이제移住現況은 아래와갓다

가、種別面積
一、火田(休耕田을含함) 八五一町六三
二、濕地及岩石地 四四四町〇二
三、農耕地 七九二町九二
四、燃料備林水源林 一八一町六五
五、落葉松稚樹林 一二八町七八
計 二、四九九町〇一

나、私有地面積 一〇一町五一

다、農作物 主要燕麥 馬鈴薯

라、住民의生活狀態
昭和十年度에 實際入山한戶數는 二一五戶인데 水電會社伐木作業遲延等事由로 六月中旬에야 開墾을完了하야 播種期도 失하고 또霜害때문에 馬鈴薯가 七四[illegible]이오 燕麥은全滅되야 食糧이不足하게되엿다 그래서 葛田堰堤工事又는各地木材作業場에 가서 勞働하야 겨우生活하는狀況이다 長津의[illegible] 西閑面所에서 五十餘里되는 僻地에移住하야 生活苦를 當하는 그들의感懷는 鄕土愛와함게纏綿不絕하리라

마、指導員設置
交通不便으로 面職員이指導키不能함으로 特히指導員三人을配置하기로되엿고 事業實施中으로道廳令治德氏를駐在시켜서 事務를擔當케하엿다

바、敎育施設
赤水里新興洞에 簡易學校를設置하고 昭和十年八月부터 移住民兒童을 敎授하는데 學齡兒童三百餘名中 겨우八十五名을 收容하게되엿다

七年동안苦戰하든 長津地主會小史

一、緒言

昭和二年九月에 資本金一億萬圓의三菱系長津江水電株式會社에서 貯水池及其他用地로서 長津郡의新南, 中南, 西閑, 上南等四個面內土地數千萬坪을 買收코저함에對하야 四個面十九個里住民이 締結束하여 對抗하엿스니 그것이 有名한長津地主會이다 名称은 地主이나 平野의 自作兼小作農보다 아주 貧窮한農民이 大多數였다 草昧農民으로서 敢히 大財閥에 對抗함은 螳螂拒轍의嘆이라아니할수가업서서 그러나 眞能의 黃金力도 正義의압헤는 어쩔수업서서 翌年八月에 이르러 三菱水電은撤退하고말엇다 이에地主會來歷을 簡單히 적어보자

二、中南面地主會創立

過去赴戰江水電用地買收에 鑑하야 自力으로 問題를解決하려는것이 地主會組織의 動機이다 昭和二年八月下旬水電側의用地買收計劃이 切迫함을 [illegible] 金鏞周 鄭寬周等諸氏가 發起하야 九月上旬에 中南面地主會를 創立하엿다 그러하야 本部를 泗水에 支部를 各里에 設置하고 對策準備에 汲汲하엿다

三、中南面地主會蹶起

그後 中南面地主會에서는 水電側痛擊의 聲明書를 發表한後 十月七日 緊急總會를 열고 對策을 討議하엿다 이때 郡當局에서는 地價協定의條件으로 먼저 地主會를 解散하라고 要求하엿스나 斷乎一蹴 하얏다 會社側은 土地買收價格은 坪當三錢乃至九錢을 表示하엿스나 不應하고 地主會는泗水에 會社側은下碣市에 各各本部를두고對峙하얏다

四、地價査定委員會

水電側은 비로소 [illegible]手段의不利함을깨닫고 地主會에對하야土地價格의 提示를 要請하게되엿다 地主會에서는 地價査定委員會를設하고坪當二圓乃至五圓八十錢으로查定하여 水電側에 提示하엿다 兩方의 差가너무懸隔함으로交涉은 決裂되고 爭議는持久戰에들어갓다

五、四個面地主聯合會及對地主懇親會

中南面地主會의鬪爭을 通하야新南, 西閑, 上南의地主들은 組織的行動의有利함을 認識하게되여 三面에서 各自地主會를 組織한後十月下旬에 四個面地主聯合會를設置하고 李寅郁金鏞周李泰完鄭寬周等諸氏가幹部에被選되엿다 水電側은會社對地主懇親會를 開催하려고 地主中有力者 四十餘名을 招請하엿스나 會場外에는 數百名地主가 둘러싸고 招請바든地主들은 有力地主 懇親會를 反對하고全部 退場하자 水電側은다시對地主會 懇親會를 開催하게되여 水電側代表 鈴木氏가 地價坪當 四錢乃至十一錢을 다시聲明하매 金鏞周氏는 價格의不當함을 論駁하고 鄭寬周氏는 水電의 無理한買收方法을 罵倒하다가 何等의歸結이업시 散會하엿다

六、運動資金三萬圓調達

水電側의 離間策, 土地브로커의出沒, 地主들의 負債等 모든事情은地主中 土地賣買者가만케되여 會의內部的 分解作用을이르켯다 幹部들은 이것을크게근심하야 昭和三年三月에 이르러 李寅郁, 李泰完, 鄭寬周三氏를京城에 보내여 四月에 韓圭高氏로부터 金三萬圓을 借入하여가지고도라왓다

七、用地買收中止와下碣出張所撤歸

用地買收가 順調로 되지못하여 工事施工期를 여러번 延期하여 온든바 世界的 恐慌은 나날이深刻化하야 水電事業도 樂觀이되지안코 用地買收도 無望함으로 昭和三年八月에 水電側은不得已用地買收를中止하는 同時에 下碣出張所까지 撤歸하게되니 [illegible]年間紛爭은[illegible]

八、鄭寬周財閥의 登場

五六年의 長久한歲月을두고 [illegible]리말려하고 씨로는長津水電事業은 昭和八年四月에이르러 三菱系로부터 野口系의손에넘어가서 새로히 長津江水電株式會社를創立하고 土地買收와 그價格에對한聲明書를發表하고 九月부터第一期工事를시작하엿다 그런데聲明書에表示된土地價格은 昭和六年度時勢를標準하야 坪當六錢乃至十七錢이엿다 地主會에서는 諸大河 李泰完 李寅郁 鄭寬周等諸氏를幹部로 選定하고 陣容을 다시整頓한後 役員財團과 새로히對抗하게되엿다 (그동안金鏞周氏는死亡하엿다) 그러나 時局은急變하야 前日과가티 對抗하기는 [illegible] 이를許치안홈으로 [illegible] 和한態度로臨하엿는데 水電側은 [illegible] 地主會는 總督府에陳情까지하엿다

九、地主○○과 地主會解體

幹部在監中水電側은 남어잇는 地主會代表格大河 林在苑等諸氏와妥協한結果 用地價格은 聲明書보다 一錢을올려 七錢乃至十八錢으로하고 三萬五千圓을 地主會에支拂하야 負債를淸帳하기로하엿고 또建物 墓地等은定價外에特히 移轉費를厚給한것과 其他有利한條件으로 用地買賣가協定되엿다 그後負債를實地調査한즉 單利法定利子로만해도 五萬圓에達함으로 水電側은 一萬五千圓을더하야 五萬圓을支拂하엿다 이에重大한問題는 비로소解決되고 七年苦戰의地主會는 最後의悲壯한 記錄을남기고 閉幕되엿다

鄕土愛의結晶인 長津湖畔記念碑

貯水池區域住民은 이萬古의 大變을 當하야 不得已 牧歌的인 鄕土를 作別하고 永年相扶하여오든 隣里親戚과 서로 흐터지게되매 그들의 쓰라리고 구슬픈 離鄕의 哀愁는 저鄕土의千길萬길우에서 눈물거리는 푸른물결로 더부터 永遠히 흘르게되엿다 그러면 무엇으로 慰安을 삼으며 무엇으로 記念을 삼을까 모든 遺蹟이라도 남겨노치안코는 못할것이 그들의 心情이엿다 비록 새로운 江山에 移住하드라도 그리운故土의歷史만은 永遠히이즐수가업다하야 新土有志林在苑 大河 金鏞周 李寅郁 鄭寬周李泰完諸氏의發起로 移住記念事業을計劃하게되엿다 그리하여 沈水되기直前인 昭和十年七月十八日에 浸水區域內의 住民一同은 그들敎化의大本山인 中南面私立中東學校에서 最後의懇親會를열고 눈물겨운 惜別의情緖를펴는 同時에 移住記念碑建立과 移住記念誌發刊을 決議하게 되엿다 今後로 三千人一心의 鄕土愛를 말하는 記念碑가千古湖畔에屹立하게될것이오 [illegible]

古蹟巡禮

歷史가 짜르고文化가 뒤떠러저니만큼 有名한古蹟은 업는중 長津[illegible]과 舊邑[illegible]은 貯水池中에 沈沒되엿다

▲梁巨水土城址 上梁巨水里에 잇는데 壬辰亂時에 尹東轍이 [illegible]

▲書院 [illegible]

수고만이 아깝다 이런단장은 금물

잠자리에나 목욕탕에서는 차라리단장을말도록

손질 한번에 얼굴이 확 달라지는 그러케 미묘한 단장을 어로 다 붓으로 형용하야 내기란 본시 용이한 일도 아니요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밤낫 어떠케 눈ㅅ섭을 그리시오 어떠케 분을 바르시오 하고 말하지만은 본는 사람으로 하야금 도리어 향방만 찾기 어려울 뿐이지 별 소득이 생기지 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쭈어 드리는 것이 어떠켓습니까? 그게 차라리 귀에 쏙쏙 들어 갈 것이 아니겟습니까? 그 것만 잘 알아 두신다면 단장하는 수단이 자연히 훌륭하야 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절대로 못 쓰는 단장을 들겟습니다。

◇…잠자리의 단장을말자

잘때 분을 훔뻑 바르고 자면 살결이 고와진다는 말이 잇습니다만은 그 것은 아모 근거도 업는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이익은커녕 손해가 납니다。 본래 피부에도 호흡작용(呼吸作用)이 잇는 것인데 분때문에 그 호흡작용이 순아롭게 되지 안습니다。 그래서 살이잘 휴양(休養)이 안되는동시 고만 우그러 들고 찌그러저서 얽죽 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히 단장이 필요하시거든 간단하게 하시는것이 조흡니다。『뻬니』도 조금 칠하고 눈ㅅ섭도 조금 그리고 분도아조 조금 발러두라는 말입니다。

◇…아이샤도를 진하게말자

녀름이나 그측후에는 누구나 살이 조금 빠지게 되고 딸아서 눈까장살이에자연 그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만일 아이샤도를 진하게 한다고하면 얼굴이 고만 병적(病的)으로보이게 되지 안할수 업습니다。

◇…입술베니도진하게말자

음식을 먹을때 그릇에 벌거케 뭇거나 시간이좀지낸뒤 농담(濃淡)이생기어서는 아조 재미가 업습니다。 입술에다가 뻬니를 칠하고서는 다시 한번수건으로콕콕찍고 그우에 [illegible] 두는 것이 조흡니다。

◇…목욕통단장도말자

목욕을하고 나면 피부의구멍(毛孔)이 활짝 열리어 그중에 들엇든 때도 전부 빠지고 난참입니다。 거긔다가 분을 더덕더덕 칠하야 노흐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다지 조켓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안합니다。 도로혀 목욕은 혈액의순환을 잘되게 하야 피부의 분비작용(分泌作用)이 왕성해지게 합니다。 거긔다가분을 바르댓자 곳 고만 녹아서 업서지지 안할수업습니다。 냉수에 얼굴을 씻고 화장수쯤 발러 두는것은 무방합니다。 분은 절대로 못씁니다。

◇…단장법을자조 갈지말자

오늘은 이러케 해 보앗다가 내일은 저러케해 보고 래는 또다시 이러케 해서 단장법을 자조 갈아서는 못 씁니다。 한 방법으로 얼마를 두고 연습에 연습을 더하야 솜씨가 무르녹지 안하서는 안 됩니다 하다 못하야 화장품도 한 가지를 좋오때두고 써보아야 한니다。 이것 저것 갈아 드리어서는 안됩니다。

가루숫쓰는법

숫을쓰다가 사갈사갈깨여진가루숫이남거던 그것을그릇에 담어서부억간이나 찬장가튼데 너허두시면 음식냄새가 풍기지안호며 다른데서 들어오는 못쓸냄새를모다 흡수하여 버립니다

함함한곰새끼

사람이나 짐승이나를 막론하고 다 커서보담은 어려서가 귀여엽스럽습니다。 미련하고 더러운 곰도 그 새끼만은더구나 쌍으로 나무를 타고안진꼴이 퍽 함함하야 보이는구먼요。

도회지에 시달린부인의 매력회복하는법

—송분에넘기는하지만…

신경질은 여자의 매력을 말살시키는것입니다 그러나 도회지에서는 신경질이안될수업게되는것입니다 긔게、몬지、소음、소음……모든것이조급하고 따분하야 정신이얼떨떨합니다。편지가튼것쓰다가 봇대를깨무는사람、그리고 담배를과히피우는사람、그리고 잠이잘오지안해서 초조히밤을새우고 낫이면동서로 방으로 급히도라단여서 한시라도 몸과마음을 조용히 가질수업시 신경을피로하는

여자여러분! 당신의꽃다운 청춘! 청춘의매력을 회복시키랴거던 이책을 읽으시라! 하는 상당히긴서문을 가진 매력부활법이라는 저서가 요지음미국서발행되엿습니다 그내용인즉 너무호화로운수작이만허서 그날그날의생활에좃들이는 사람으로는도저히 생의도못내도록 되여잇는것이 결점이며『이러고야 거긔엇지안흘수잇겟나?』하도록되여 잇습니다 매일정신을 멍하니 한두시

간식 낫잠을자는데 침대에 편안히누엇슬수업스면 의자에 안저라도 자는것이좃습니다 될수잇거던 방을어둑컴컴하게해노코 자는것이조흐며 목욕은너무더웁든지너무찬물에는 하지말고 뜨뜻하게 자긔의체온에맛도록데여서 하는것이 대단히 조습니다 목욕을 한 다음에는 약십오분동안 벼개를비고누어서 쉬는것이 조습니다 밤에는 여덟시간을 꼭 자야하며 자기전에 맥차를마시고 방은 어둡게하얏다 이 밝더라도 광선이드러와서 잠에방해하지 안토록하여야한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꼭일정한시간에 조반을먹고 정신은 너무만히먹는것은 해롭습니다 음식먹을때는 신문이나 잡지가튼것은 읽지마도록하지안호면안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까라안지안흘때는 무엇을 먹지안는것이조습니다

健康第一步!

지금부터시작할 냉수마찰

매일해서습관부치면 엄동설한은무병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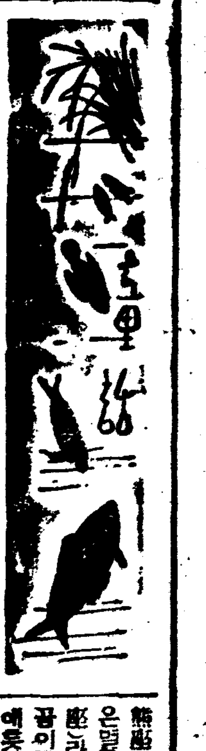
가을도 점점기퍼갑니다 오늘래일 허둥지둥하는동안에 철수는·어느듯 쌀쌀한바람이 부는느진가을도 눈아페닥처올것입니다

날세가 이이상더 선선해지기전에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할 냉수마찰은 긔온이너무나 저진뒤에는 새삼스리시작하기가 거북하게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다지 끈난치안흔지금부터 시작하면 습관부치기 쉽습니다

우리네의 피부는 다만것보기와가티 사람의 몸을 포면으로 싸고만잇는데 뭇치는것이아니라 신진대사 작용을하야 메장의 꿈절이나 호흡작용을가지고 잇는것입니다 그 중거로 만약 우리의 피부전면에 기록가튼것을 발나논다면 그사람은 얼마이잇지안허서 그만 숨이 때혀 죽는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피부의 작용은 신장의작용과 흡사한것으로서 신장이 오줌을 배설하는것과 가티 피부도 땀을 배설하는것입니다그리하야들이것은체온의조절을 도모하고잇는 정말귀중한긔관입니다 그러므로 피부가강하면 할사록 그사람은 건강한사람이라고 할수잇는것입니다 냉수마찰은 피부의저항력을 도두는것이니 피부가 몹시힌사람 대개가 몸이약한 사람입니다 냉수마찰은 피부의혈관을 훈련시키고 더위나 치우에이기도록 예비하며 혈액순환을 조절하야 신진대사의작용을 도우는것입니다

냉수마찰을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냉수마찰을 해본일이 업는사람이 처음 시작하라면 처음부터 냉수로 급격히하면 그만감긔에 걸이기쉽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동안은 첫세시작할절후를 선택하여야 한니다 시작할 절후는 여름동안이조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여름은 일긔가 더운때문에 그러지안허도 냉수에 목욕을 하게하며 시원하게 몸을 가지고 무리를한다하더라도 그다지 감긔가튼데 걸릴념려가업습니다 이왕 여름에 시작못하엿다면 지금부터라도 조습니다 그러므로 피부의 작용은 특별히 약한 사람이 아니면 감긔들념려가 그다지 업스며 또 고생스럽지도 안습니다 그리하야 아츰마다 너무 차지안흔물로부터 습관을 기르기시작하는것입니다 그러케하면 나중에는 치운겨울이라도 아모러치도안케 계속할수잇스며 어름을 가지고 몸을 문질러도 치운줄을 모르게되는것입니다。 속담에 소는 색기적부터 날마다 안아서 들기로 습관부치면 큰소가된뒤에도 드려올길수잇다는말이 잇지안습니까

습관이라는것은 이와마찬가지로 조금식 조금식모르는사이에 계속하야 드리여 노흐면 나중에는 처음시작할때와 비교하면 여간큰차이가잇는것이아닙니다 위선수건을 물에 적시여서 몸을한번 닥근뒤에 그저즌수건으로 조용히 몸을 비벼문지릅니다 그러면 몸이 확근확근해지며 혈액순환이왕성해져서 몸이붉으스레 해지는것입니다 그런뒤에 냉수를 두어바아치 떠퍼씻우고 그다음에는 마른 수건으로 물이 마를때까지 마찰 하는것입니다 심장과 신장이 약한사람 각기병잇는분은 냉수마찰을 하여서는 못쓰는것이며 조심하여야한니다



북두칠성

(별이된 어머니와 아들)

(一) 康承翰

여러분 북두칠성(北斗七星)이라는 일곱별을 아십니까? 저녁을먹고 뜰에나가안저서 서늘한바람을 쏘이노라면 바짝이며 나타나는 별들가운데 북쪽하늘에 유난히 크게뜨는 일곱별이 북두칠성이라는 별들입니다。 네모진 상자를 노끈으로 맨것가티 노혀잇습니다。 또 이북두칠성이 잇는곳에서 조금떠어저 북두칠성과 모양은가트나 조금 적게생긴 일곱별이 마주노혀잇는데 그일곱별중에서 제일 큰별이 북극성(北極星)이라는 별이올시다。

옛날부터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일곱별을가리처 곰가티 생기엿다고 북두칠성은 대웅좌(大熊座)라고 부르고 북극성과 작은일곱별은 소웅좌(小熊座)라고 부르는데 큰곰과 적은 곰이라는 이별들에게는 이러한 애듯한 이야기가숨어잇습니다。

×

아주 까마케 오랜옛날 어느 조그마한 시골동리에 인돌이라는 아이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잇섯습니다。 인돌이는 어려서부터 칼쓰기와 활쏘기를 대단히 즐겨하여 나무로 까까만 들은 칼을 차고 대나무를 휘여만 활을메고 산으로 들로싸다니엿습니다。 동리아이들을 모아노코 대장노릇을 하는것도인돌이에게는 들도업는 자미나는 일이엿습니다。

그리고 인돌이의 어머니는 얼굴이 어여뿌기로 동리에서 유명하엿습니다。 동리에서만 유명할뿐아니라 온나라를 다털어도 그때는 인돌의어머니만큼 어여쁜 여자가 업섯다고합니다。

바로이때 한울나라에 어여쁘게 생긴 천사한분이 살고잇섯는데 몹시 심술시나운 나쁜천사엿습니다。 이천사는 한울나라에서도 자기가 제일 잘생기고 땅우에도 저만큼 잘생긴 사람이·업슬줄로믿고 모든 천사들가운데서도 아주 건방지게 굴엇습니다。 이천사는 매일매일 저의집 뒤뜰에잇는 노픈나무가지에 나와안저서 땅우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나려다보며 저보다 더 어여뿐 사람이 잇나업나 살펴보앗습니다。 아모리 뚝뚝히 나려다 보아도 저보다 낫게생긴사람이 업섯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심술구즌 천사는 더 교만한 마음이들고 세상모두가 제것가텃습니다。

『오냐! 세상에 나보다 잘생긴사람이 하나두 업구나! 한울나라에서도 내가 제일이오 땅우에도 나보다 나은자는 업스니 이게 자랑이아니냐!』 하고 뽐내엇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천사에게 아주 슬픈일이 생기엇습니다。 다른것이아니라 천사가 전날처럼 나무가지에 올라안저서 세상사람을 나려다보다가 저보다 몃곱절이나 잘생긴 아주 어여쁜 사람이잇는것을 보앗든것입니다。 온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생긴 줄로 알엇든 천사는 이어여쁜 사람을보고 그만 미칠듯이 기가 막혓습니다。 그어여쁜 사람은 다른사람이 아니라 바로 인돌이의어머니엿습니다。 호수가티 맑고 맑고 시원하게 생긴 인돌이어머니의 눈이 우선 심술사납게 날카로운 천사의눈보다 몃곱이나 보기조핫습니다。

인돌이어머니가 저보다 잘생긴것을보고 곳 천사는 설음이 낫습니다。 당장에 인돌이어머니를 죽여버리든지 어떠케하여서 먹어버리고시픈마음이 왈칵 치밀어올랏습니다。 그래 천사는 인돌이어머니를 어떠케 할가 궁리를 하엿습니다。 이궁리 저궁리하다가 천사는 마츰내 조흔꾀를 하나 생각하여내엿는데 마술을써서 인돌이어머니를 흉하게생긴 곰으로 만들려는것이엿습니다。

그래 그다음날 천사는 해가 뜨기 오래전에 일즉이 이러나 아직도 수풀속에서 쿨-쿨-코골며 잠자는 곰의 머리털을 한오래기 몰래 뽑아들고 인돌이네집으로 나려갓습니다。 이제 그 터럭을 인돌이어머니의 머리에 던지면 곳 인돌이어머니는 곰이될것입니다。

(계속)

관절염과카리에스

(問) 이십세미혼남자인데 약칠년전부터 다리를 아럿는데 근년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합니다。 의사의 진단은 루마지스관절염이라하며 여러해동안 약도만히 복용하얏스며 침도 마젓습니다 그러나 아모 효과도 업고 오히려 이、삼년전부터는 허리도 압흡니다 이병은 고칠수잇습니까 선생님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하면 전쾌하기까지 금액은 얼마나 들겟습니까 (鎭南浦 YL生)

(答) 의사의 진단이 루마지스관절염이라고요 저의 생각에는 루마지스라기보담도 결핵성관절염인것갓습니다 그리유는 경과가 칠년인것과 또는 다리관절만에 국한한것으로 그러생각합니다 또는 허리가 이삼년전부터 아프시다고요 그것은 척수카리에스나 아닌지요 엑스광선을 보심이 필요할것입니다 제가근무하는 병원은 내과와 소아과 전문학자만 취급하는고로 당신병은 외과에속한것인고로 적접외과병원에 문의하심이 적당할것갓습니다 치료는 입원하여야만될것입니다 완쾌되는 시일도 상당히 오래걸릴것갓습니다 ([illegible]病院長 朴[illegible]來)

주부가명심할 사탕공죄론

애기·애밴부인·정신로동자 —이런사람에게 해롭다

온갖 식료품이란 식료품 음식이란음식에는 모다들설탕이들고 단맛이나는것입니다 현대사람은 옛날사람보담 단음식을 질기는경향이 잇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농꿈이는 더 말할것업고 어른들의 조석밥상 우에도 설탕이든 음식과 반찬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조선서는 옛날부터 단음식을 그다지만히 먹지안헛스며 료리에도단맛이 비교적 적게드러잇섯습니다 그리하야 특수한음식외에는 일반적으로짜고 매운것이 주장이 되여왓습니다 다 그러하든것이 요사히와서는 가위전부가단음식을 생각하고아모리 벽지궁촌이라하더라도 설탕을안쓰고는 음식을 작만하지못하는것처럼 보급되여잇습니다 과연이설탕이라하는것이 사람에게 리로운것인지 해로운것인지 아러볼필요가 잇습니다 설탕이 처재치근과 위장에는 해롭다는것이 일반의 상식으로알여저잇스나 한편으로는리로운주도잇습니다 위장가튼데는너무과한것은해로우나전연단것이업서서는 안되는것입니다 사람의몸은 적당한 설탕분이 잇서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리되는것보다는 해되는결과가 더큰것은 사실이며 일광을쪼조쏘이고 몸이건강한사람이며 음식가튼것도 기름지고 영양이 만치못한것을 상식하는사람—다시말하면 농촌가튼데서 보리밥、서숙밥에 채소를 만히먹고 로동을하야 몸이튼튼한농부들에게는 이설탕이란 것을먹으면 대단히조흔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고량진미만 먹고 일광도잘안쏘이며 로신도안코 안일만치든사람은 으면 대단히 몸에해로운것입니다 더구나 어린아이이나 임신한부인네에게는 여간해로운 것이아닙니다

일반적으로볼때 정신을 과히쓰고 일광을 자조쪼이게할 기회가적은 현대인에는 설탕이 백가지해로움에 리되는것은 불과한두가지에 지나지안흘것입니다

담배나 술이 사람에게해로운것인줄알고잇슴으로서 금주 금연의 소리가 노파지고잇다면 설탕이 인체에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은 아즉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밧고 수용이 격증하는것은 무슨까닭인지모르겟습니다

몸에털만흔 『아이누』사람

사람이란 먹는음식、거처하는처소 풍토에따라 마음만 달러지는것이 아니라 몸도 달라지는것이니 치운지방에사라 기름진동물성의 음식을 먹고지나는북해도의『아이누』란 종속은 온몸에 털이 스부룩하게 낫습니다 우리네가 본다면 숭치스럽다할정도입니다。

第1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會期 自十月五日—至十四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出品種別

中等部
東洋畫科
西洋畫科(四君子를包含함)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畫科
手工科

褒賞

(中等部)
入選作中에서左記二級의入賞作을選拔하야各各如左한正賞과副賞을授與함 (以外의入選者에게對하야는全部記念牌를進呈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五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三十圓)

(初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二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十圓)

一、特別褒賞【本社長賞】一人百圓
右記特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 認하는作品에對해서는 本社長으로부터 特選賞에兼하야 特히 社長賞百圓을授與함

一、申請及搬入場所 一、本社庶務部 二、平壤、大邱、咸興、全州各本社支局
一、申請期日 自八月十五日至九月廿七日 一、搬入期日 自九月廿八日至九月三十日(但記支局을通하야 搬入할時는二十九日까지)
一、出品規定 本社所定申請書를請求하야 指定欄에 各項을明細記入하여 本社 又는 各地方支局에도 申請書에記入한바와가티 作品裏面에도 作品題及作者氏名、住所、所屬學校學年別及 年齡等을明記하야 本社又는地方支局所로搬入하시오 (詳細規定은葉書로問議하시오)

主催 朝鮮日報社

季·節·○·除·隊

避暑地報告

夢金浦雜記 (上)

張桂東

이번여름에 나는 또 夢金浦에가서 四十餘日을 쉴하엿다 今年이 벌서 三年째다。 夢金浦는 海水浴場으로 열린지가 벌서 五六年이 되엿지마는 첫재 場所가 僻僻하고 둘재 모든設備가 充分치 못하기때문에 아즉 손이 그리 만지못하고 한창 盛한때라야 數百名이 될락말락하다。

모든것이 글자대로 原始的이아 다른浴場에서 보는것가튼 近代的, 享樂的 雰圍氣는 求하려야 求할수업다。 그래니만치 費用도 比較的 만히들지안는다。 어데까지 不便이잇슴에도 不拘하고 내가 해마다 家族을 하여 그곳을 차자가는것은 이러한 朋友味가 잇기때문이다。 바닷물은 아마 半島안의 어느浴場보다도 제일맑고 깨끗할것이다。 다만 院里에서 浴場까지 五里나 되는길을 自動車로 往[illegible]것이 欠이라할까。

×

今年은 七月一日에 그곳을 차자갓다。 第一番이다。 아즉 [illegible] 찾외도 하지만 [illegible] 헤쳣다。 짐을 나려노코 그립던 砂丘를 올라갓다。 때는 夕陽, 夕陽의 砂丘, 砂丘의 夕陽。 砂丘로 올나가라면 나무다리를 건너가야한다。 다리미테는 [illegible]한 汐水가 흘으고잇다。 아아 내가 조와하는 이나무다리! 다리우에 거러안저서 물을굽어보며 어린애가티 뚜다리를 한들한들하는것도 一種의 風景이냥。

砂丘에 올라가면 아프로 뭇연한 西海가 보이고, 西南으로 長山串이 突出한 附近에는 몃輪의 歸帆과 落照의 絶景이잇다。 北으로는 海岸을 沿[illegible]

[illegible] 나는 이 砂丘를 조와한다。 砂丘에 올라 아이들과 뛰고 바질하기도 조곰, 언덕에서 굴작이로 뛰굴기도 조곰。 落照를 바라보면서 (On the Dunes)란 女史의 [illegible] 低吟하야 [illegible] 情緖를 實하야도조곰 그것이 너무 感傷에 지나친다면

平沙落日滿[illegible]
說道風流不寂[illegible]
芒角偃埋千尺[illegible]
泡花的歷半[illegible]
此時[illegible]
怨地傷心我亦新。

이라고 [illegible] 그럴거 할도되하다。 가다가 흑시 나는 「서우피ー」
「어기는 [illegible]」
이란 一節을 외이면서 [illegible] 한 생각에 [illegible] 잠기는수도 잇스나, 그보다는 [illegible]의 [illegible]을 한번 을프는것이 [illegible] 아니하냥。

松間引步午風[illegible]
手弄金沙到夕陽
千載阿郞無覓處
[illegible]消[illegible]海天長

文章論

現役評論家의 群像

文章으로본그들의印象

④ 朴英熙

金斗鎔氏

氏도 文學에 뜻을 두기는 亦是 韓植氏와가티 『藝術運動』時代부터 시작한듯십다。 그때에 그의評論을 한번 읽은 생각이나고는 以來 아모러한 消息도업드니 昨今年동안에 數篇의 評論을 發表하는것십다。 昨年동안에 發表된 論文은 읽을 機會조차 업서서 무어라 말할수업스나, 今年孟秋에 『내가본 朝鮮文壇의 新傾向—푸로文學의 前途』라는 一文을 보길이 잇기에 그것을 根據삼어서 印象으로서 數言을 費코자하는바이다。

韓植氏는 十年 前後에 잇서서 그文章의 變遷이 만히엇다。 그러나 金은 아모 變遷이 업시 보인다。 좋이나 文章이 조금도 풀림이 업시 古體를 그대로 가지고 잇스니, 첫재로 文章은 억세고 딱딱하야 읽은사람의 마음에 後息을 생기는데다가 意氣衝天하는

氣分으로 그냥 회스러나 띠려가는 바람에 또한읽은사람이 恐怖를 갓게되는것도 그文章의 一性格이다。

韓植氏는 車輪에다가 모래를 담어바리고 「모란」의 「스위치」를 빼앗기어서 論을 아多少支離이잇는듯하면서도 줄기찬 動力에 機械가 돌아서 지기는하나 機械는 戰場의 旋律에서 機械學的 「심푸니」가 鉄邊的의 「스피드」의 文章美의 흐름이 나 그것이 돌아가기는 하기 文章의 構和가 이즈러진 듯하다。

吾聞하게 된 그의 文章은 無數한 羅列뿐이요 文章의 藝術的 조화나 고 [illegible]。 그러한 觀念에 그의文章을 對하는때에는 書記의 義務的인 會議錄이나 報告書의 가튼 感이 보다도 左나는것도, 不得已한 理由의 이러한 觀念을 그리고 그 義務는 엄만 어도 될것이다。

文學者의 素養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무어라도 氏는 文學的 修養이 업는이 생각되는바는, 무어보다도 文章에 關한것

은적고, 모도가 社會科學的術語의 羅列뿐이니, 나의 感想으로서 말하면 그것을 文學論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文學을 가지고 文學을 論하지 안코 文學을 가지고 政治를論하려하는까닭이 그原因이라 그것은 어떠한 結果를 이루는지 氏의 自由에 맛길것이나 그러한 까닭에 文章은 文學的 餘韻이 업고 審美的 調和가 업시되는것이다。

만일 이것을 會議錄이나 報告書라고 한다면 그것은 훌륭하고 濃色업는 文章이다。 그熱과 激情이 거치어진 要點을 表現한 文章이며 그것을 力說한 文字라 할지라도 그 論文을 보고 그 理念에 곳 感染되기 어려운것은 亦是 그의 文章이 生硬한 文字의 羅列에 不過한까닭이다。

韓植氏

氏가 過去 十餘年前에 『藝術運動』誌에서 文學에 關해서 論한일이 잇슨후로 다시 文學에 關해서 論한 일이업다가, 비로소 近間에 그의 論文을 二, 三篇 볼수잇섯다。

過去의 그의評論을 본테서 어든 나의 感想이란 勿論 말할것이 못되엿다。 그때의 그의 想은 激하엿지만 그의 文章은 三篇 볼수잇섯다。

今年 東亞紙上에 發表된 「自由主義의 本質—特히 文學과關聯하야」의 一文을 읽고서, 그의 文章은 全然히 새로운 境地를 開拓하엿다고 보앗다。 勿論十年 동안에 變遷이란 巨大한것이기는하나, 現在의 그의 文章은評論家로서 濃色업는文章이다。

그審美를 表示함에 잇서서 그展開는 急激하지 안코며, 그論의 展開는 어디까지든지 沈着하야 空虛하지 안코 차근차근함이 纖細性이 잇슬뿐만 아니라 어디인지 묵을 壓迫性을 가지고잇는듯하다。

그 壓迫力이라는것은 決코 强制的이 아니요 읽어가면 갈수록 讀者의 마음에 感染되는 壓迫力이다。 文章이 整頓될수록 讀者에게 주는 感銘과 引力은 큰法이지만 氏의 文章은 感銘이나 引力도 勿論 업는것이 아니나 그보다도 注意周到한 警戒에 讀者의 注意가 다르테로 달러진다。

[illegible]할까닭이다。 가다가다 近間의 그의 論文은 讀者로 하여금 그의 話題의 [illegible] 잇서다。

「拙劣함이」

同時代의 同好者들의 文章과 가티 그 稱에 拙함이 잇서다。

「文章이나」

다만 외길로만 나가는것이라 眞實하고 沈着하고 確實하나 亦是短點으로 보이는것은 文章의 餘裕업는것이며 그 道程을 만드는것이 그 한個의 文章의 또한 性格인듯 십다。 要約해서 말하면 技路가 업는 [illegible]

金南天氏

原來로 말하면 그는 小說에 興味를 가지고, 小說家가 되려고 한듯하엿다。 그리하야 創作에 精進하든때도 잇이 오래前에 過去로 흘러가버리고 近間에보면 때때로 두어篇의 反駁論을 草하엿슬뿐이다。

過去로 떠들어 욕나가벗, 中

[illegible] 單一한 道程이 行軍이 阻止되지 안흘까하는 念慮가잇다는것이다。

이러한 危險을 쾌느다면 그의文章은 別로것업시 自己의所信되는바를 表現하기에 不足업는 文章이다。

「그論文은」

淸新한 맛과야 른 技巧가 감칠맛이 잇서다。 그리고 銳利한 할듯이 생각되는까닭이다。 그대로 나가면 失手업시 成功

「그곳에는」

反省이라는것이 업기때문에 事物에 關한 理解가 不足하야저 절로 文章은 生硬하게 되는것 이다。

氏가 만일 文學을버리고 보다더 만흔 社會的 實際家로서 文章이 流麗하게 되며든지, 혹은 新聞記者로서 簡明淸新한 文章의 所有者가 되다할지라도, 如何間 成功임에는 틀림업기는 하나 나의偏見과 私情으로는다시 文學의 새길을 開拓하야 그길에서 그의文章이 流麗하여지기를 바라는바이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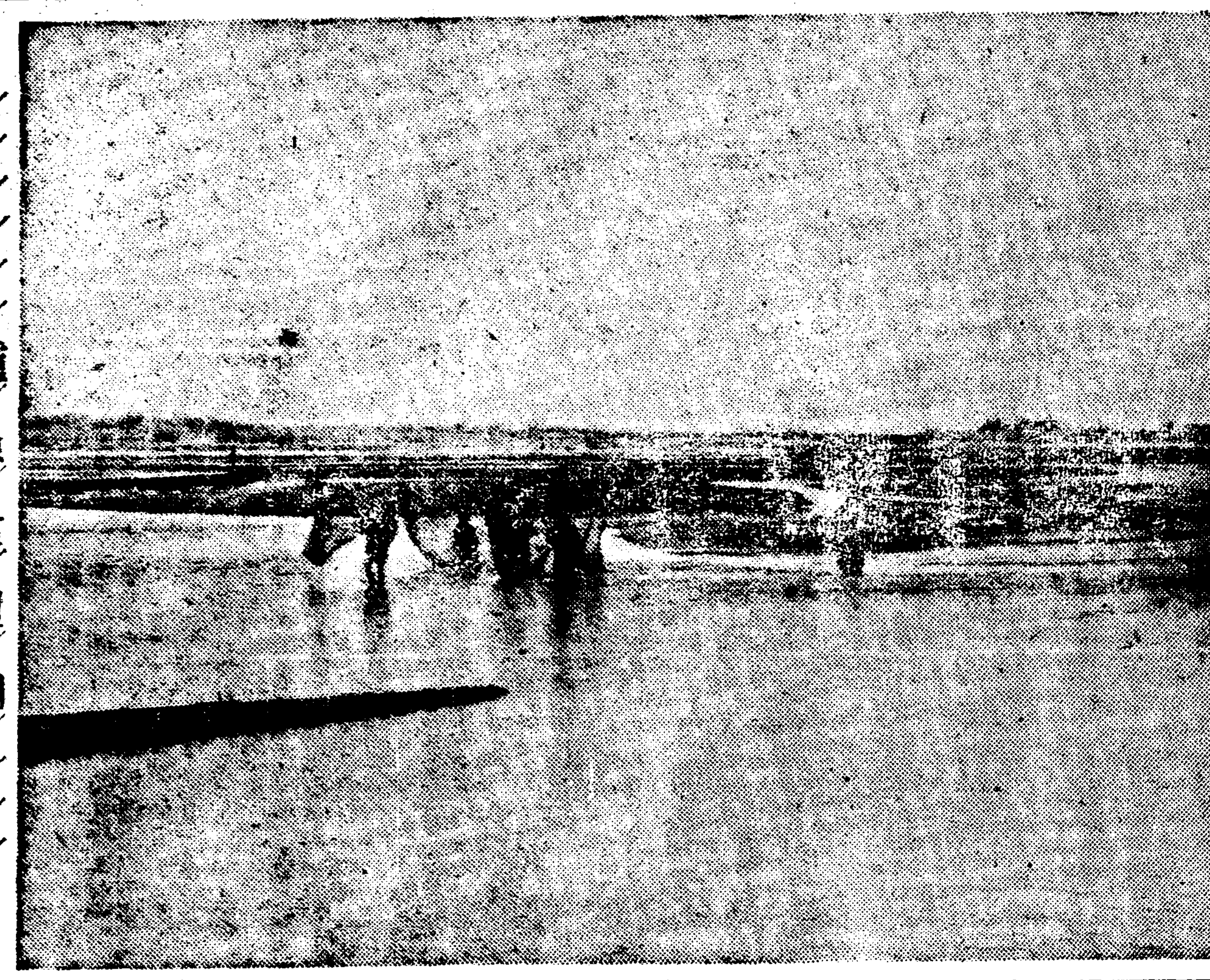
文章이며 輕快한 文章이엿스니 나는 內心으로는 그의 年齡에 比해서는 極히 늙을만치 老練한 文章이라고 感歎하엿스며 그後로는 서로交友의 情도두터워젓 섯다。

그러나 그後의 그의 文學的 文章은 오랜동안의 沈滯의 洞窟을 지내서 어려라고 할만한 發展이 보이지 안엇다。 그러나 近間에는 내가 期待하엿든 小說家의 「코ー스」는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고 무슨 義憤으로서 두어篇의 反駁文으로서 世間의 話題를 刺戟하엿다。 勿論 그의文學的 文章은 그대로 發揮하지못 하고

하고 다른길에 서서 바야흐로 어디로가야 조흘것을 못찻진듯이 混亂한듯하다。 그러드라도 그文章의 한구석에는 亦是 淸新하고 輕快할뿐만이 아니라 抒情的香氣이 떠돌앗스나 어딘인지 모르게 自慢과 自矜이 넘처흘러서 文章은 바야흐로 쏠데업는 覇氣에서 過度한興奮과 精力의 消費가 巨大하엿다。

文章에 自矜과 興奮이 보다 더만히 나타날때에는 一見 文章은 힘잇는듯이 보이기도하나 못까지 읽지못해서 空虛와 倦怠를 感覺하게되는것이다。 그리고

氏는 創作에對한 才質과 力量이 잇슴을 일즉부터 發見한까닭이다。 그것을 그냥 일허버린다는것은 애처러운일이라고 나는 늘생각하는까닭이다



鰌/魚/살/칠/때

漢詩

『薔薇』—押香

桐岡考選

佳作五之四

鳳山郡楚臥面楚郎里 崔楨穆

朝來豐露襲芬芳 ‧
濃麝殷勲滿我裳 ‧
架矮能扶千朶重 ‧
院深偏鎖十分香 ‧
刺攅丁凝驚飛乍 ‧
枝軟也愁燕坐忙 ‧
莫道夏城紅紫盡 ‧
此花晚豔續春光 ‧

—移……民……文……學……의—

『過去와 現在』

③ 韓植

이제야말로 國粹의旗를 가지고 "따라온"에 集중되고"에 아로" 町의 그의困難하든 테가"벼울, 유ー고"町으로 되여잇지만은 亡命當時의 그의困難한生活은 言語에 絶하는 이만큼한 苦痛에잇섯든것이나

(國外)

에 잇서서 發表를 이룬 그의 創作도 佛蘭西本土에 엇서서는 모다 發賣禁止를 當하고 "부탁셸"에서 夫人이 病死하엿슬때에도 夫人의 遺骸를 佛蘭西國境까지 박게 못바라왓든이만큼 모든苦汁을 맛보왓든것이엿다。 이와가튼 移民文學者는 어느때든지 勿論라고 發表

的 계 왈는로부터 佛帝 迫害를 밧든 運命을 가지고 잇섯든것이니 그와가튼 理由로써 그들이 亦是 被壓迫階級의 文學的形成의 一翼으로되고 잇든것이며 따라서 文學으로써 그의 生命을 未來에 向하야 持續하는 模樣가 잇섯든것이다。

우리는, 눈을돌려 現在의 獨逸文學을 支持하는 "나치스"文學과 그와反對的 立場에선 內의 衣鉢을 追放당한 作家들의 移民文學과의 對立을 볼수가잇는것이다。 勿論 過去에잇서서도 부란데스가 指摘한바의 偉大한 文論

「하이네」를 追放한 歐洲 三大國의 하나이엿지마는 現在에 와서는 그때보담도 더욱 大規模로 또 十九世紀後半의

(帝政)

로시아의 專制政策보담 도더욱 猛烈히 훌륭한 文人들을 或은 幽閉하며 或한 追放하고잇는것이다。 이제로부터의 文學史家는 부란데스의 佛蘭西移民文學第一卷에 따라 獨逸移民文學第一卷까지를 쓰지안흐면 안될것이다。 第一國에 잇서서는 프로샤의 隱匿의 實로 두번재 今番에는 第三帝國의"하ー케" 그로이체"에 依하야 產出된것은 더 말할것업다。 부란데스는 第一國의 追放한 移民作家들"하이네"를 비롯하야"루린젤"이"호 른다ー"等을 十九世紀文學思潮史에 잇서서는 青年獨逸派中에서 詳論하고잇섯든것이나 그들은 亦是 封建的인"웬헤름四世"로부터 神聖同盟의 主導者"멧텔닉히"의

反動政治에 아르기까지 獨逸青年들의 에 내려누르든 壓迫의 무거운과 暴政公然으로 青年獨逸派作家들에게 對한 迫害는 날로 苛酷하게되든때를 當하여, 그들의 生活은 迫害당하며, 그들의 著書는 法律로써 禁止당하는 處分에 實爲하엿든것이엿다。 "하이네"가 그러한때 "카ー즈"들의 民族論의 序論의 끄데서 "伯林"에는 獵犬의 무리가 가득차고잇다 이 라에對한

(獵犬)

의무리가 猛狀하고잇는것을 나는벌서들을수가잇섯다 라고말한어 當時의 反動의 波瀾는 날로심하여 갓든것이나 마츰내 그의 全著作은 一行의 글도禁止당하고 말엇든것이다。 그는 드듸여 十一年五月一日 라인河를건너 스스로流謫의 몸이되야 千八百三 由의國的 巴里 佛蘭西의 大首都에 自

가버렷든것이다。 그後에 獨逸聯邦議會는 그當時까지 合法的으로 出版하엿든 獨逸青年派의 모든 著作까지도 禁止한 一大彈壓을 거듭하게되엿슴으로 巴里에 가서도 旣往發刊한 書冊의 印稅로 사라가든 "하이네"의 困窮은 言語에 絶하는 境遇에 이르럿든것이니 "하이네"가 드듸여 佛蘭西政府의 補助金을 밧자고 決心한엇든 事에서 하엽이 봄수가잇는것이다 그後에 本國巴里에 亡命하여온 뮤소"들과 서로알게되엿스며"따레 以後에 잇서서가장 自由스러운 獨逸 사람은 보"따스"하이네"에게 詩評을 쓰라고 勸하였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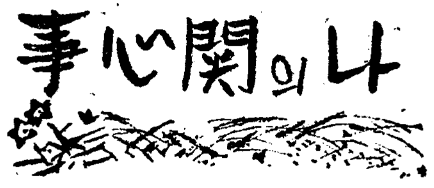
그리하야 "하이네"의 諷刺詩는 맑스들의 援助가 해 단만하얏든것은 틀림업든

(事實)

이나 그當時獨佛社會主義者들이 發刊하는 『獨佛年誌』『前進』等에는 하이네의 有名한 諷刺詩가 數多히

發表되여잇섯든것이다。 하이네의 有名한 諷刺詩 『루ー도위히王讚歌』는 獨佛年誌에 敍事詩 『獨逸겨울이야기』의 一部는 亦是, 맑스가 編輯하든 『포어ー르멘츠』 前進에 各各發表하엿든것이며 그間에 잇서서 저 有名한 詩篇을 냇든것이다。 장 훌륭한 詩篇을 냇든것이다。 그러하야 그는流謫의 몸에 잇서 困窮한生活에 쓴면서도 그의 創作力은 衰退안흔 듯하리, 漸漸 그의 光輝를 發揮하여왓스며 諷刺의才能도 날날이 날카롭게되여감을이로써 數多의 훌륭한 詩篇을 남겨 노왓든것이니 글로하야 그의文學的聲名은 점점 노파갓스며 따라서 그는 이와가튼 移民文學으로써 事制獨逸을 諷刺하여 蹂躪하는 것이나 글로말미암아 맛침내 그의事業에 잇서서 巴里에 가서까지도 追放당할번하였든것이 다。

나의關心事



나는 인제까지바다를이다시 山골로向하고 흙러움탑다는 이야기를들은일도업고도그런것을 본일도업스며 보앗다는사람을 만나본일도업다。 이것은 奇蹟도 아모것도 아니다, 넘어나 自然스러운自然의法則에서는 想像할수도 업는일이며 想像할必要도 업는일이다。

그러나 이것은自然界에 잇서서의 法則이요 自然과는

넘어나 嚴然히 區別되는人間界에잇서는 흔히보는 가장보는現象의 하나이다。 그것이 精神的으로 自然그덜리떨어저사는 人間으로서의 進步되는現象인지 또는退步된 現象인지 그것을 나는알지 못한다。 알지못하는것이 또한人間으로서는 幸福된일인지도 몰은다。

어느詩人은人間의悲劇은人間이『패거』가아닌데서 出發한다고 말한것을 나는이을 좋을줄른다, 아니, 이쯤수가 업다。 『패거』가 아닌데서出發한 人間의모든 悲劇은또한 人間이넘어나 人間的인데 일어퍼컷슬것이고 더욱

한줄기逆流

辛夕汀

저ー가엽슨 民族 에디오피아가 몹내음새 울신울신나는 黑샤쓰의 더러운소매자락미테로 개고리처럼 슬며시울려간 不快한記憶이 아직도 새로운오늘에 西班牙에서는 內亂의소리가 노파가고잇다。 그러타!『패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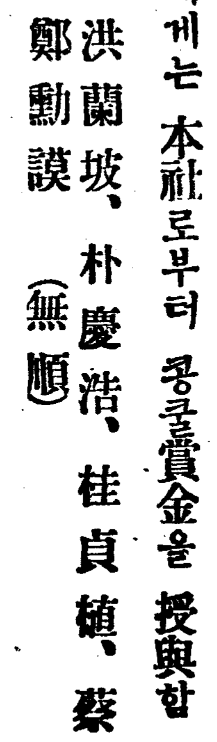
아니므로서 出發한 悲劇인 것은勿論이다。 그러나 人間이 넘어나 人間的인데서 이 悲劇은 큰것이다。

『싸홈』의 『싸홈』을 업사기 爲해서 始作된 뭇스러운싸홈』이라면 地球덩이가 가루가되도록이라도 人間인 우

리는 繼續해야할것이다。 그러나 西班牙의 싸홈의動機를보건데 『싸홈』을 하기위한『싸홈』에서 出發을한데는 슬퍼하지 아니할수가업고不快하지 아니할수업다。 出發의動機는 어데가잇던 가장 人間이 올타고생각하는 옳흔길로 이『싸홈』이 歸結을짓는다면 多幸한일이다。

그러나 人間은 永遠히人間이요 人間以外의 아모것도아니다。 實로 人間界에는『逆流』로는 못되現象이 오래持續하나니 이도한 저ー에디오피아의 그것이될가걱정되고 關心되는일이다。 果然 人間界에는 이작은逆流가 언제까지나 存續되려 고?。

靑丘園病床에서



將來의兵器

主로電氣用品에關하야

(4)

方聖熙

이實驗의 結果는 十數米 (四十餘尺) 前方의 火藥을 爆發식히스며 有効距離가 五馬力을 使用하면 一〇七米 二十馬力을쓰면 二百米에 達하며 其怪力線의 効果를 들면 如左하다

1、無線電信電話의 交信을不能케함
2、內燃機關의 點火栓의 機能을 停止식혀 航空機 自動車 戰車의 運轉을 不能케한다
3、人畜에 電擊을 주어暴動을 不能케하며 電力만强하면 殺傷도可能하다
4、火藥을爆發식힘
5、電線과가티 電流를 運搬하며 避雷針의代用도된다
6、모ー타、電燈에作用함
7、土地를肥沃케하고 作物을 刺戟하여 收穫을增進함

(다) 獨逸 一九二三年 「시ー멘스」會社가 電磁作用을 應用하여 飛行機, 自動車等의 運轉을停止식히고 또或間 伯林市內의 自動車가 不時에 모다 一齊히 停止되여섯다는等報告가잇스나 確實한 詳細報告가 업스며 此等硏究가 性質이極秘의 軍機에 屬한것이며 알수는업스나 大戰에 敗北하여 約에서 兵備上에 過酷한 制限을 바든 獨逸이며 또世界의 어던他國보다 科學의 先進인 慘酷을맛보고 「베르사이유」條獨逸이니만치 이條約이 아모効力도업슬만한 新兵器發明에 努力하엿슬것이며 또어던程度까지는 成功하엿슬는지도 모릅니다

(라) 英國 一九二四年 「마ー쵸니」氏(?)가 私財로硏究하여 殺人光線을 完成하여서 多人數의 面前에서 實驗한結果는 다음과갓다합니다。

七幅ー十幅의 反射鏡을가지고 二一二米前方의 火藥을 爆發식히고 또 鼠君을 二十匹燒殺하엿고 또一頭의 植物을 燒殺고 內燃機關의 運轉을 中止하엿다합니다

勿論이實驗은 한模型에 不過하엿슴으로 眞ー이것을 實際目的에 使하여 擴大實際化하면 遠距離의 人畜殺傷 火藥庫爆發 發藥物燒毁 飛行機、自動車、戰車運轉中止等을 容易하게될것이고 또이 放射線은 어던한 物體이라도 透過하는것임으로 이怪力線에 對하여 防止하여 保護하는方法의案出은 不可能한일이라고한다。

이怪力線의 正體는 勿論알수업스나 X線도아니며 紫外線도 赤外線도 아니며 高周波의 電流와 此와로 相對 放射線로 目的方向에만 發射식힐것이며 또이것을 二方面에 放射식혀 交叉케하면 其效果는 倍加하여 其交叉點에 高熱을 發生하여 如何한 物質이라도 溶融蒸發케한다고한다。

(마) 米國 一九二四年 「에ー헤만」氏가 不可視光線을가지고 高壓電流를 發送함에 成功하엿스며 이放射線은 五〇ー六〇尺前方에잇는 鋼板(두긔四分)을 瞬間에 燒穿하엿다하며 三、四個月後엔 有効距離가 哩(十里가 約三、五哩)로 計上케될 豫定이라고 附記되여잇섯다한다

一九二五年에는 「에드윈・스콧트」博士가 死光線을 發明하여 三〇ー四〇米의 有効距離를 가젓다고 傳하여잇다

「나우엔」放送局

創立三十週年

有名한 伯林郊外에잇는 「나우엔」의 放送局이 試驗放送을始作한것은 지금부터 三十年前이고 最初는 二十五馬力의 牽引車用「모ー타」를 使用해서 大戰中에는 眞키로와트의 送電機二個를 使用한 經驗을 가젓슴으로 今年 盛大한 創立三十週年記念祝賀會를 開催하려고 目下準備中이다。

外日報學藝欄에 映畵論反駁을 쓴것이, 그의 初論文인듯십다。 當時에 그論文은 同期間에 큰讚詞를 바덧다。 나도 그讚詞를 是認하엿다。

勿論當時에는 林和나 金斗鎔이나 누구나 藝術運動派의 文章의 共通된 長點과 短點을 가지고 잇섯스나 特히 내自身이 그論文에 興味가 잇다고한것은 무어보다도 進就性에 잇섯다。

世界的記錄

模型飛行機

六月十七日 英國의 「피ー슈벳ー」의 野原에서 模型飛行機의 競技會가 열녓는데 여기에 參加한 當年十五歲의 「한부르그」市學生의 만든 「그라이다ー」의 模型飛行機는 카다랄드에서 上昇해서 千米의 高度에 達하야 飛時間後에 眼界에 보히지안엇든바 數時間後에 「프레ー쓰」에 「스라인」의 飛行場附近에 着陸햇다는 報告가잇섯다。 滯空時間은 三時間十四分 飛行距離는 勿論 九二「키로」라고한다。

紛爛한天分의爭霸戰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 (女)「슈ー만」 一、님은 나의安息 (男)「슈벨트」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찰트」

【바이올린】 一、「콘첼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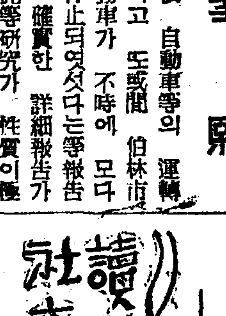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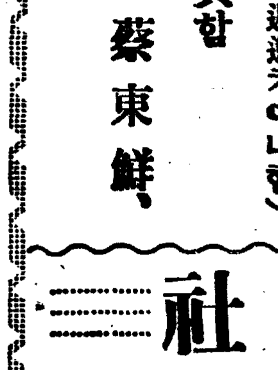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五十錢에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콩쿨賞金을 授與함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江湖의文學青年女性 讀書家 諸君에게 告함—生이 左記와 가튼文藝小說을 빌여드리려고하는바特히 文學을조와하고 金錢關係로 冊을못사고 讀書熱에 불타는이 冊을 代價하여 貴君만들어 리 허매이는이에게限함—그러한이가잇거든 男女간에 勿論하시고 速히 往復葉書로 通知하십시요 卽送하옵니다 노두여드리겟습니다。

▲그女子의 一生 上下 無限愛의 金像、開拓者、靑春의 曠野、處女의花環、無情、흙、永遠의 無情外에 同作家物多數 금반지、달빗、목숨外短篇物多數 鄕思遊外多數著作名作選集外에 名長篇物多數

全北金堤邑新豊里一五六 徐炳俊

▲本紙八月二十一日社交欄求婚者에게 答합니다 貴下의 지나간날의 經過와 獻身的으로 犧牲하시겟다는 其仔細한 말삼을 左記住所로 貴書하여주십시요

平北龍川郡楊市 文命仲

▲湖南에게신 黃信德兄의著者는 笠嶋에 있든 [illegible] 한 貴下의 上京하셧다 더니 다시 歸鄕하엿는지요 不然이면 依例에 湖南 國境會社서 愁惱하엿나 旣往에 [illegible] 이 不如意하이 아다 推想兄의 所信이 不如意하이 아니가요 그로因하여 煩悶으로게 다 이조흔 所業이 잇겟쇼 그렇소이 遠成兄에 [illegible] 光이 그렇소이 요 多幸이이 [illegible] 兒近況을 傳하여주시옵소서 以上 [illegible]

▲八月十八日附 咸南永興邑金溶淳氏에게 答함 貴下가 願하는 貴任文會講義錄은 本人이 買入코저하오니 支拂方法을 詳細히 左記住所로 通知하여주시면 直接應答하겟나이다

廣信旅館二階室內 下生

▲讀者社交室를 通하야 諸先生님들께 어리석은말 무릅쓰고 伏願하나이다 小生은 멀ー니 全羅北道 錦山이란 一山峽之窮村出生으로 今般普通試驗關係로 上京하온바 試驗規定이 豫定한바와 어긋저 旅費金이 太不足되니 딱하고 어리석은者이옵시다 市內諸先生님들이여 一宿泊五十錢可量으로 約七八日間만 同宿케하여주시면 感謝無至이옵겟나이다 如此한 苦悶은 人事에 不拘하시고 幾分을 同情하여 주시면 감사하겟나이다

全州大正町六丁目二七 GHT

▲讀者에게 問합니다 平北永山市 金在涉 그 前安洞에 잇든 皮膚科專門인 金殷誥氏病院 淸華病院이 只今何處에 잇습니까 社交室을 通하야 알려주시면 感謝하겟슴니다 一讀者

▲京城朴上奉께 四年前에 南北으로 相別한후 只今까지 消息을 나에게 글하기 엇지이와 그러하오니 이紙上으로 一次消息을 傳하여 주시면어떨가요? 湯罪합니다

▲讀者諸位께서 누구시든지 右記本人의 住所를 紙上으로 一次 가르처주시면 感謝하겟슴니다

▲千年前 比律賓 가셧든 全羅南道 [illegible] 보[illegible]님이 年前에 比律賓서 歸鄕後 現在 어디에 잇는지 알고 시퍼 하오니 알리시는분은 通知하여주십시요

▲父親벗(金在爵氏)只今으로부터二十年前에 [illegible] 京城府에生存하시다는[illegible]

新刊紹介

▲文敎의朝鮮 八月號 代價十錢 發行所 京城府 [illegible]

▲最新農業寶鑑 [illegible] 第一編 第二編 第三編 第四編 第五編 [illegible] 一〇三〇番 定價三十錢 發行所 京城府本町二丁目 大阪屋號書店

▲女性 九月號(內容) 家庭太平記 (著者) [illegible] 女子와 [illegible] 의 이야기 [illegible] 定價 一圓

[illegible]

▲平北龍川 [illegible] 京城府 [illegible]

布衣記

連載野談 (四) (不許轉載上演)

申鼎言 作 金龍超 畫

신의잇는편에 (三)

제후소저가 무진을 향하야떠나려든 전날밤에 벼운국선을차저가서 무릎이 한솔이되어가지고 슬히울면서 제후소저가벼운국선의 귀에 입을 대고 부탁한것은 다른것이아니라 벼운국선도 자긔의 뒤를 딸아와달나는 부탁이엿다.

「서방님! 이몸이 밝는날이면 산도설고 물도선 무진땅을향하야 꿈에도 생각못한 리교평을 차저간다는것은 오직 부모의 명령을 위한것 즉 다시 말슴하면 이곳에서 이몸이떠나는것은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려는것. 그러치만 무진땅을 들어서서는 이몸이 죽는지 살는지 그생사를 보살피는것은 리교평의 책임 이몸이 리교평의 그책임을 위하야 또는 리교평의 그몸을 위하야는아무런 신의를 지킬것도 업고 순종할것도 업는몸. 그러키니 서방님이 아무리 수고가되시드래도 이몸을 위하야 무진까지만 와주시면 이몸은 서방님과 다시 그곳에서 형편을 딸아 조처할일이잇는것. 그럼으로 부듸부듸 와주시되 세상이목이 무서우니 고생하시는동 뎌좀 고생이 되실지라도 낫이면 객사(客舍)에 드시여 편히쉬시고 밤이들거든 길에 올으시되 눈본언덕, 깁흔개천, 비탈진곳을 조심조심해서 오서요. 강독이나 쓰라린마음이 서방님 기다리다가 아주 라벌리지말게. 부듸부듸 쏙오서요. 예! 예!」

하면서 목메인소리로서 부탁한것이엿다.

그래서 벼운국선은 제후소저가 발동에 차저온것도 침만듯밝기여놀 때문구나 그 부탁하는 말은 침만듯같게 들어도 듯아닌말이라 한편으로는 크게 놀납고 또한편으로는 크게 감격하고도 깃붐에 넘친 눈물을 금치못하엿다.

이에 벼운국선은 제후소저의 부탁을 밧고 작별한뒤에 무진을 갈 채비(差備)를 생각하다가 별겡은 겅정을 정하야 제후소저의 동정을 부탁을 설파하고 이어서 정원의 주선으로 혜장을 작파해 제후소저가 혜미아래에 들고지난 그길을 벼운국선은 말벙아래에 필고 따라가게된것이다.

그런데 제후소저는 벼운국선을 작별한후 한숨, 눈물, 염려세가지가 넘나드는 쓰라린 마음지경을 보두안고 그렇지렁 무진지경을 넘어들어섯다.

이때에 리교평은 친히 오리정(五里亭)가도려 나섯때 영접하는곳이니관가로부터 거리가 오리)까지 나와 제후소저를 영접할새 오색초롱과 오색기로서는 길호사를 베풀고 장창과 월도를든 군사로는 길치이를 떨치고 여러고인(鼓人)으로는 악사(樂師)우화(于勸)의 수제자 니문(尼文)이 하놀과 땅이짝(天地配合)한다는것을 의미하야 지은 헌하곡(玄合谷)과 생사를 같치하는 원앙새의 애정을 칭송하야 지은 원앙곡(鴛鴦曲)을 번갈러 알외이게하니 그청아한 소리에 천지만물이 모두 회괴로웟다.

리교평이 이렇듯 장한 긔구로서 제후소저를 마지하야 관아(官衙)에 이르러서는 미리사처로 정하야든 태수아문(太守衙門) 별장에 출거하얏다.

그러뒤 리교평은 관아게지하인중에도 곳도갓고 말도가곤게집하인을 뽑아 유두분면으로 고어고이 단장식혀 제후소저의하우에서 시중케하고 밤과 낮을 군사로는 별장의 압뒤, 좌우를 호위하게하얏다.

이때 제후소저가 그별장에를 어서자 첫재 비단방과 울든 주렴으로 꾸민 호화찬란한 긔외요초를 벌리노흔것이 마음에 드러야주는뿐만아니라 남데하인으로 하야금 좌우에 뫼고 천하게하는 몸이나 아직 혼례를 거행한지아니한몸 그리기를 내보가 하인이외에 내처소에잇는것이 례가 아인일!」

하며 그게집하인들에게 향하야 모두 물너가기를 명령하얏다.

그게집하인이 곳 제후소저의 말을 리교평에게 전하매

「아하. 제후소저는 과연 례의가 장한 숙녀. 초례를 행하기전에 내하인으로하야금 겻가히 거행케한것은 분명 내의 실수!」

하며 리교평은 뎌욱 제후소저의 례의범절을 치하하고 [illegible]

제후소저가 그 남데하인을 물러처버린것만이아니오 오직 례의로써 그러것만이 아니오 장차 벼운국선을 기다리 마음에 [illegible] 끄러가든이다.

演藝

映畵都市建設과 自國語版製作
—伊太利映畵政策—

로ー마ー時代가되여서부터 各國이모다 外國映畵를 上映하는데 모다그것을自國語版으로 製作하기爲하야 얼마나 苦心하고엿는지모르는것이다 日本에서도 米國作品을 日本語版으로 改作하야 讀者들의注目을 끌고잇거니와 最近伊太利에 잇서서도 무首相의提唱으로 로ー마附近에「헐리우드」보다 더큰映畵都市를 建設하야 世界映畵市場의 制覇를잡으랴고 計畫中에 잇어서 科學的硏究가 國庫의 補助에 依하야 着着進行中이나 外國로ー키ー의 自國語的의製作에 잇서서는 獨自的技術이動員되고잇다

그것은「도피아치」프로세스라는것이다 勿論「가르보」나 데트릿허가 여기에잇슬理由업스나 米國俳優들의말소리를가진 俳優들이 잇서서 그들의英語의「다이아로ー그」를 伊太利語로서 말하는것이다 「그레타·가르보」는「녹리ー나·라단치」『프레데리크·마ー취」는「로버ー트·롱그에리ー」等「헐리우드」의 스타ー의말소리를 마터가지고잇는 俳優들이 잇는것이다 例를들면 키ー톤의 흉내이 日本에건너오면 그것을 키ー톤의 입으로 日本語版을 能히할수잇는 흉내으로 만드는데 키ー톤이『私は牛乳屋です』하는 프로ー그를 스크린우에서 키ー톤이 짓거리게하는것이다 키ー톤이 日本內地語를 알지못하면서도 말하는것처럼만드는데는 東京의P·C·L等의스타디오에서 키ー톤의말소리를 할줄하는俳優로가령丸山定夫가 키ー톤代車이格한 指導下에서 各各責任진代身俳優들이 自己의마른『다ー이아로ー그』를짓거리게되는것이다 이것은『日本정八時間式으로完全히』밀림에 錄音되기에는 實로한개가 三週日式걸이다한다그리하야 거긔서 일하는俳優들은 그때으로에 五弗及乃內二十弗까지라고한다(同盟로ー마發)

(사진은 로ー마郊外에잇는映畵撮影에서 스타ー를養成하는光景)

映畵界消息
獨逸篇

◇우ー파는「미사!프로덕순」에서는「맘블로ー프」의 撮影所

柊林토픽
俳優年齡表

映畵界라는데는 어디를勿論하고「꺼심」과 公然한秘密이만흔것은 共通되일이거니와「헐리우드」처럼「꺼심」과 秘密이만흔곳은 드물것이다 여기에는 아침먹고 해가 저무도록 할일업시 남의 이야기만 가지고 도라다니는 사람조혼「꺼심피」가 잇다면 한편으로는 映畵界에서라도 알수업는 秘密이 잇는것이다 그러라하야 그秘密은 有名한 米國의 俳優를 暴露한「아메리카·홀리워드」모양으로 單行本으로 發表되지안히라도 누구의 입에서 어떠케 흘러나오는지모 모르게 一般으로 알려지고 電波를따라 大西洋과 太平洋을 넘어가는「秘密의 發展」을 보게되는것이다.

「헐리우드」俳優들의 정말年齡이 얼마식이나되는지「스크린」우에서는 能熟한「메익·업」으로 말미아마 四十이넘은 中年女子가 二十前後의 젊은사람으로 보힐수도 잇서서 도모지 궁금하기짝이업는것이다.

俳優의 年齡이라하는것은 大體로 自白하지안는法이라 自白하얏다하더라도 한두살 에누리는依例히 잇는法이니 信用할수업는것이다 그러나 여긔에 쓰인것은「로스안젤스」의 加州政務所에 登錄된스타ー의 所得素를 잠간 훔처다가 複寫한것이니 絶對로 世間에 도라다니는 此種의 文獻과는 다른것이다

자ー必要잇는사람은 手帖에여 잠간 적어두는것도 조흘가한다

『존·베네트』二十五歲
『단시·캐롤』二十九歲
『베ー부·다니엘』三十四歲
『마리온·데비스』三十六歲
『헤렌·헤이스』三十三歲
『짜ー네트·맥도날드』三十九歲
『콜린·무어』三十四歲
『메이·롭손』六十八歲

의 정말들은다

『재네비브·트방』三十四歲
『슈바리에』四十八歲
『체리ー·루버』三十五歲
『윌·로자소』五十七歲

그리고 第一年少者로서 人氣잇는이로서 『셜리·템플』『베이비·루로』를 들수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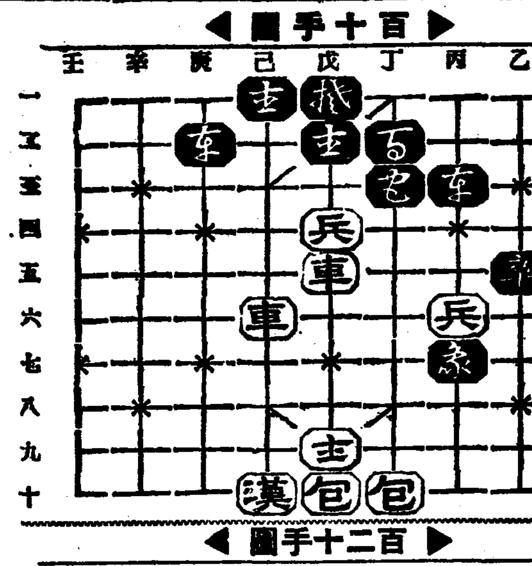
"잃어버린地平線"

撮影中의어느날 監督프랑크·카프라가 이사벨·쥬엘」에게 菓子를먹어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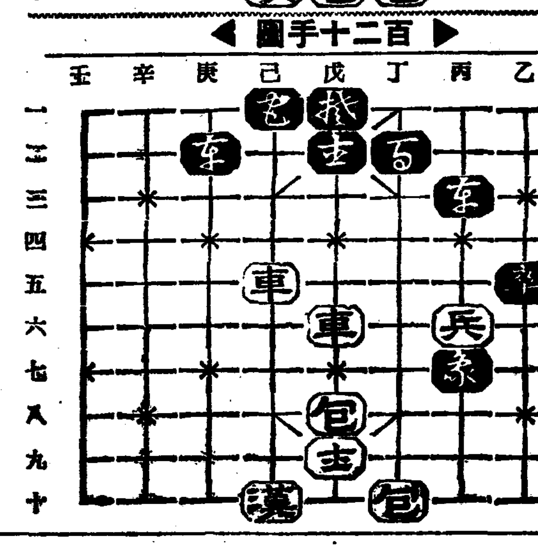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二十)

先手 李在鳳 對 後手 朴泰翰

◀百十手圖▶



◀百二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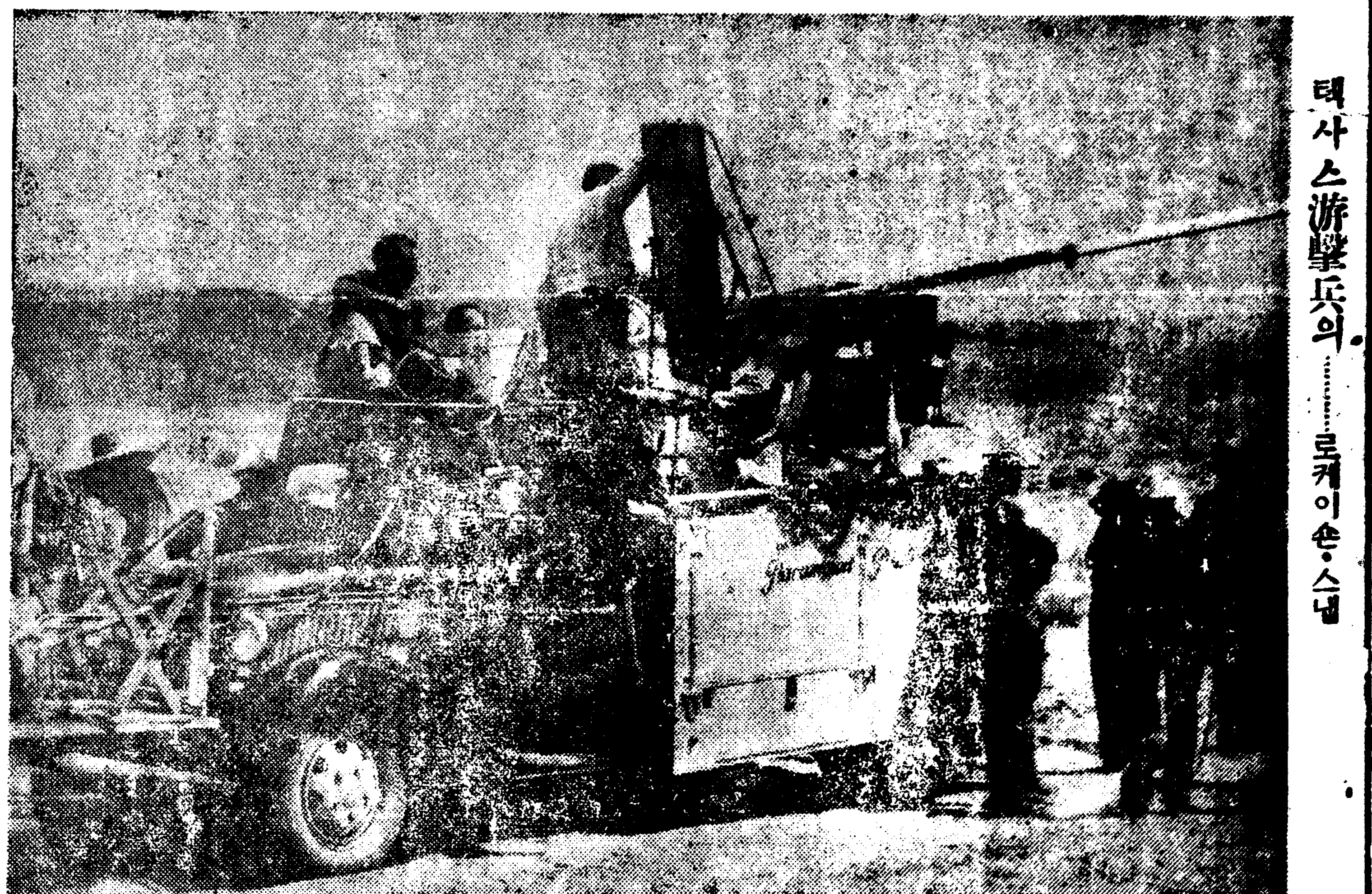
戊卒ー戊六
己二車ー己五
戊四兵ー戊五
丁三車ー己一
戊三兵ー戊五[illegible]

[illegible]

폭쓰社作品 三六ー三七年度

廿世紀폭쓰社의 一九三六ー三七年度의 製作豫定發表는 다음과가티되여잇다

◇榮光에의길 『하ー바ー트·마샬』監督, 프레데릭 코·마ー취主演
◇라모나 『헨리·킹』監督 『로ー레타·영』主演 天然色
◇바바리ー海
『윌리암·A·사이터』監督
◇샤ー리·템플主演
◇女學生宿舍
『어ー빙·캄밍스』監督
『시ー몬누·시몬』主演
◇메리ー에게
『존·크롬웰』監督 『워ー나·바터』主演
◇젊은 [illegible]
『론이스·사이러ー』監督 『크레어·트레바ー』主演
◇노래하라 어린이!
『시드니ー·란필드』監督 『아돌프·멘쥬』主演
◇歌劇場의 챠ー리
『묘·한버ー스톤』監督 『워ー나·오ー란드』主演
◇핑스킹파ー렌도
◇戀 女
『에드와ー드·묘·그리피스』監督 『자ー네트·게이너』主演
◇큰거리
◇어ー빙·바ー린 原作 『 [illegible] 』
◇P·G·워드하우스 原作
[illegible]
◇第七天國
◇失踪女의捕捉
◇空中王
◇어린女子
◇白獨人



텍사스游擊兵의……로케이손·스냅

雙生兒受賞

廿世紀폭쓰社作品의「五兒誕生」이라는 되온누五姉妹出演映畵가米國위스콘싱州의 어떤市에서上演되매 同映畵封切後第一먼저誕生하는아이에게는 賞品을주겟다고 發表하얏더니 어떤職工의안해가雙生兒를나허서 映畵館에서는 急히賞品한벌을 더작만하야 授與하얏다한다

발의哲學
발의保健·化粧과 圓滿한演技
M·듸드리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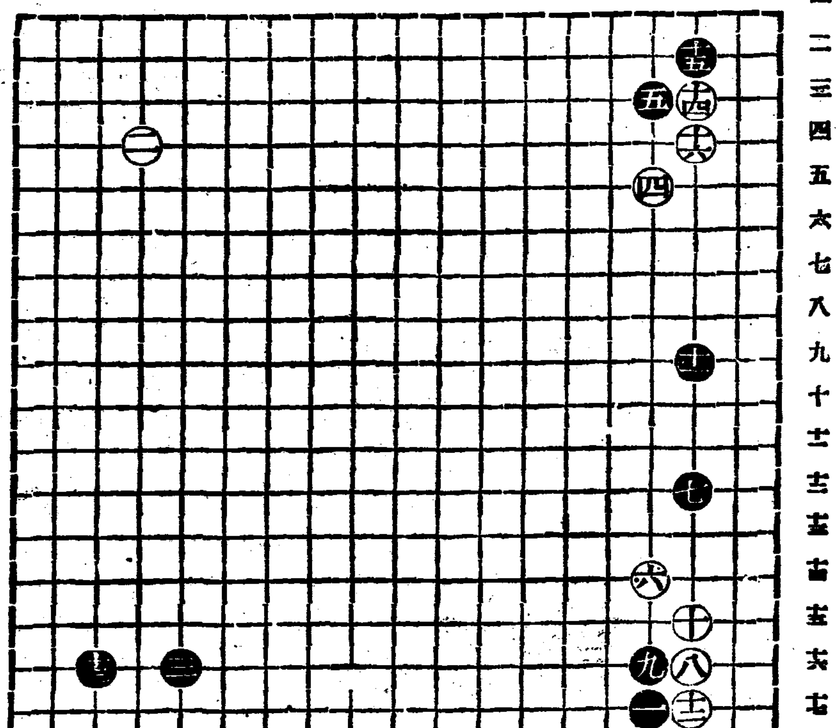
내가 아름다운발이야기를하게되는것은 무엇이지 自己의발이 絶大의自信을가진것가테서 어떠하거 죽이 엇습니다 다만 발의美라는 것이 女性美에 必須업는要素라면 그에對하야 [illegible] 사람들의 [illegible] 가지는것은 天然스러운일이라고 봅니다 [illegible]

키지안흐면 안되는것입니다 나는 검은옷을 질겨함으로 그때는 새스듯한 珊瑚色으로 합니다 珊瑚色으로「부론도」화도 調和가잘되는것입니다 발톱이구더질염여가잇스며「콜드크림」을만히 바르고 레몬으로 정돈합니다 그리하야 발가락表情도 가늘게하도록기를을바르면더운물속에서량 [illegible]

족소바닥으로오보가쯤은지룹니다 더욱 발놀아름답게하기爲하야는 뛰는運動이 大端히 効果가잇는것입니다 그리고 椅子에안즐때도 늘注意하야 어떠케하면 아름다울가하고 硏究하는것입니다 발을이모러케나 걸치고안는것처럼 보기싫은것은 업습니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

白 尹周炳
黑先 柳鎭河



一 丁의十七
二 巳의四
三 辰의十六
四 丁의五
五 丁의三
六 丁의十四
七 丙의十二
八 丙의十六
九 丁의十六
十 丙의十五
十一 丙의九
十二 丙의十七
十三 午의十六
十四 丙의三
十五 丙의二
十六 丙의四

蔡極文氏評日 此圖는 日本式最高手段을 選拔하야 挾界에 書目을 一新코 列詳細記入할이라 黑下의 十七辰의 十六과 白巳의四 丁의五는 起初方法이 前軌를 不可放故例數를 利用할이오 黑丙의十二 丙의九는 地勢를 點掃함이오 白丙의三 挾點도 亦是新例를 使用함이가하

라듸오

三十一日(月曜)

◇午後六時三〇分 이야기 堵材高普 金汝植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講演 "二百十日과 農家의注意" 第二高普 金維玨

一日(火曜)

第一放送

◇午前六時卅分 (東)速成獨逸語講座 登張信一郎
◇午前十時卅分 家庭講演 田中지다고
◇午後零時五分 (東)和洋合奏 東洋音絃樂團
◇同六時 (東)어린이音樂會 伊東 昭子
◇同七時卅分 講演 前田 昇
◇同零時廿五分 (東)靑年의時間 關屋五十二
◇同八時 (名)三曲 佐藤正和外
◇同八時廿分 義太夫 鶴 三
◇同八時五十分 (東)浪花節 三味線 千代三 元鶴甲 東虎丸

第二放送

◇午後零時五分 설시外 一、설 새시 二、新정조가 三、오날라렴 四、뱃떠러가세 五、사발가 六、海女歌 申明珠
◇同一時一〇分 講演「新學期開始를當하야」 女子師範教諭 沈宜麟
◇同六時 (東)어린이音樂會 피아노獨奏 鄭公의노래……書早作曲 伊東 昭子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尹 乙 洙
◇同七時三〇分 文藝講演(一) 「가을과小說」 李 光 洙
◇同八時 流行歌 一、故鄕을차저가니 二、曠野에 해가저므러 三、아득한千里길 四、순풍에돗을달고 五、鴨綠江뱃사공 六、먼동이려오다 七、靑春打令 伴奏 DK管絃團
◇同八時三〇分 詩書와詠詩 一、前赤壁賦 二、秋聲賦 三、夏陽歌 林 炳 畯
◇同八時五〇分 歌劇 一、敎訓가, 자장조 나, 중모리 다, 자진모리 二、併唱 가, 短歌 나, 唱劇調 韓 孤 煥 鼓手 池 龍 九

◇曆☆ 九月一日(火) 舊丙申七月大(十六日) 丙戌·土·室·滿
●日出 [illegible] ●日沒 [illegible]

中央館 永樂町 電本[illegible] 次週 九月二日開場 白石明子·松本泰輔·池冷子 千代田篤太郎主 新月深川祭 ばらならば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光 二三[illegible]
午前二時부터九時까지
一、悲劇 사랑에속고돈에울고 三幕 林仙主作
二、新感劇派 喜劇 以熱治熱 一幕五場
三、洛山人作

第一劇場
二十七日 ヨリ 五日間
◀ 아 ン ナ カ レ エ ナ 메트로
◀ キ ヤ バ レ エ の 鍵 穴
◀ あ る ぶ す 大 將 LGP
現代名作 舞姬の贋

若草映画劇場
[illegible]

大日本每日第七報 オ リ ム ピ ツ ク ニ ュ ー ス

判明되는災地慘跡

全市暗黑世界化로 凄慘! 恐怖의一夜

市內、市外는交通通信總杜絶

馬山市內戰時狀態

【馬山】 지난이십칠일 폭풍우경보와 한가지로 마산상만시민들은이번엔음 예기(豫期)하고잇든차에 동일오후여덟시부터 마산에는 우량(雨量)칠십엉릴미리와 풍속(風速)삼십일키로의 맹렬한폭풍우가 이십팔일오전세시까지약 일곱시간을 계속하얏슴으로 전신전화(電信電話)의불통은 물론 전등(電燈)까지꺼저 온시가는암흑가를 일우엇스며 도처에서가옥은 도궤(倒壞)되고 집웅양철 기와(瓦)간판등이 공중에 날고잇서 사람들은 거리에헝매도나타날수업는때다가 바다물까지인가에침수되여 수천의피란민들은 부모형제를 찾는애처러운 고함소리와 어린아이들 등에업은채 물속에서 사람살리라는등 처참무쌍한 공포의일야(一夜)야말로 잠시동안에 수만의 생명을빼앗는 전시상태와 다름이업섯다

市內를中心으로 倒壞家屋二百戶

船舶被害도不知其數

【馬山】 폭풍우(暴風雨)로 마산전시가는 암흑의천지가되고 가옥파괴와해수범람으로전시민은S、O、S를부르지저 전시상태를 일우엇든처참한공포의 일야의 경과는별항보도한바와 갓거니와 날이밝근그의일마산서원(馬山署員)과부직원(府職員)총출동으로 피해액을조사한바에 의하면 도괴가옥(倒壞家屋) 이백열두집 선박칠백이오구두척 침수가옥 팔백여호기타합하야 피해총액 십구만오천원가량이라는데 인축의 피해는 십팔일 오전열두시 현재로 판명된것이 사망두명 행방불명세명부상자 사십칠명이나 방금도 마산서에서는 계속조사 중이라는데 그중요피해는 다음과갓다

金鳳政回漕店所有發動船沈沒外五二 ▲朝鮮郵船會社白米二百叺流失 ▲稅關 棧汽 兩棧橋流失 馬山小學倉庫全壞 ▲普通學校二階校舍全壞 ▲舊馬山驛倉庫全壞 ▲靑木商店全壞 綿棉工場一部倒壞麵子會社倉庫全壞로麵子三千枚損害 慶南精米所倒壞 瓦工場全壞 福音農業學校倒壞其外多數 浸水家屋八百戶

長城에도浸水流失로 被害額六千餘圓

【長城】 전남장성군(長城郡)도지난이십칠일에 폭풍우가 하로동안을두고 엇지나심하얏든지 전긔는 일곱시간이상을 정전하고 각군으로통하는 자동차교통을물론 전답의피해가만코 가옥(家屋)의침수는 말할수도업스며 유실된전답과 도괴된가옥은 다음과갓다는바 네살된아해한명은팔루에떠나려가서 죽엇다고한다

一、家屋全壞	一三戶	五五〇圓
一、同	五三棟	一、三〇〇圓
一、家屋半壞	一五棟	一二五〇圓
一、浸水畓	五一町步	一、五六〇圓
一、同 田	四町五反	三三五〇圓
一、流失畓	五反	一、七〇〇圓
一、同 田	三反	一五〇圓
一、埋沒畓	一反	一〇〇圓
一、風水害畓	三〇町步	三〇〇圓
一、果樹園被害	三町五反	五〇〇圓
槪算被害額		六、四二〇圓

水亂慘劇演出 長城川工事遲延

【長城】 전남장성군장성면 류탕리(長城郡長城面流湯里)를 관통하는장성천(長城川)은 지금으로부터 수년전에 장성교우호로만 제방공사(堤防工事)를한후 다리에서 알에편은 그후수차 주민들의 진정이 잇슨것도 몰가하고 다만예산관계라는 리유로써 내버려두엇든것이라 조금만한비가와도 피해가 여간만치안는대 금년에 잇서서는 폭우로인하야 일시에 쏘아오는물은 제방이업는만치 다리아래로는 밧의류실(流失)침수(浸水)로인하야 피해가만허 금년전작은 더말할것이업고 지금다시밧을 고치다드래도 명년수해를 생각하는

泗川郡內被害莫大

農作物全滅狀態

慘死者도七名判明

【泗川】 경남사천지방에는 지난 이십칠일밤중에 미증유한 대폭우로말미아마 큰수란중에 막대한피해를 당하게다함은 이미보도한바 어니와 수만호리재민은 먹지도못하고 극도의절경에 헤매이고잇는중 설상가상으로 이십칠일오후칠시경부터 돌연동남으로부터 맹렬한태풍과 폭우가 함께습래하야 전선(電線)이모조리절단되며 압흘계를만드는열방 가옥의 도궤、파괴등은 수자로 형언도 못할만치 천지를 진동하엿섯다。

새벽두시경에 이르러 맹풍과 폭우의 도수는 겨우감하게되엿다 그리고 인명의사상、가축들의사상도 상당한 모양으로 관측되며 농작물은 말할것도업시 폭풍우의 습격을 당하여 전멸상태이다 그리고 본군내에서피해가우심한곳은 해안등지인데 축동면(杻洞面)구호리(龜湖里)가산리(駕山里)를 비롯하야 사남만등지와 삼천포(三千浦)일대는해일(海溢)까지하야 도궤가옥이무려오백여호에 가산들은 전부유실되고 전멸의비참한 상태이다 그리고 전신 전화 교통등도 일절두절되엇다 그리고 가옥이도궤되여 미처 피하지를못하고 참혹한비명에죽은사람을 조사하면 지난이십칠일 오전구시까지 판명되엿이

一、泗川面牛宮里 姜埈秀의妻 石順(三〇) 長男大淳(二) 二人
二、泗川面龍溪里 朴彦敎의老母 一人
三、杻洞面龜湖里 朴潤玄(?)夫婦二人
四、三千浦邑 男二人

전긔와가티 칠명이즉사하엿든데 이외에도 부상자등이 얼마나될는지 목하조사중임으로 미상이며 이들가족의참상은 목불인견이다

神戶在留同胞도 水害救濟에活動

各團體聯合委員會組織

【神戶】 수난에우는 동포를 구제하자는 『솔로칸』을걸고 재신이만여동포에게 호소코저 각사회단체를망라하야 조선수해구제위원회(朝鮮水害救濟委員會)를 조직하고 축전구제금품을 모집중인바 그간참가치안하엿던 단체도 속속참가하여 지난이십팔일오후칠시 시내팔분통오정목구제위원회사무소에서 이십여단체 대표자가 회합하야 구제를취급방법을 협의하도록의한결과 단체별로 지역을돌게시켜 적극적활동하기로 결정하고 동오후십일시경에 폐회하엿다는바 각반의책임자는 다음과갓다고한다

▲協親會班-張敦琡 韓敦坤 金道致 曹石允 ▲泗川班-金起銖 尹泳求 孫東秀 ▲親友會-張景柱 金亮宇 ▲大和親睦會 兪孝濱 許鳳俊 李末奉 ▲東洋共親會班-金錫植 ▲大西朝鮮組合班-李仁煥 都乘寳 ▲統營同郡會班-羅宗均 ▲泰榮組合班-金潤泰 ▲大新組親會班-方寅守 ▲昌原鄕友會班-鄭京大 ▲瓦親會班-李正守 ▲大新靑年會班-金在紹▲新進會班-李敎燮▲宋丁乘員聯盟班-李扶淵 其外數團體略

이상에야 안코잇수도업고 죽을수도업다하야 물의가비등하다고 한다

航海中"와루츠"號 漁夫二名救助

【元山】 거츤바다우를 달리든외국괴선이 바다의보고를 차저떠낫다가파선된 어선에 매여달여잇는 어부두사람을 구해내엿다는 혜상에핀 국제인정미담이잇다

지난이십칠일 관동(關東)다락칸에서 중국(靑島)이청오백돈을 실고 문평(文坪)에 들어온 놀루우에(諾威)긔선「와루츠」호는 풀주야를 난파선에 달아매허잇든 어부두사람을 구조해가지고 왓다

이제그자세한것을 알아보면 전긔 「와루츠」호가 팔월이십칠일 오후구시이십오분경 대만고웅(臺灣高雄)의남방 일백사십리(浬)지점에왓슬때 깨여진배에 「로-프」로몸을 동지고 떠나려가는 어부 중승현궁고군하촌야원(沖繩縣宮古郡下村野原)중용시이(仲…)외 일본명을 발견하고 항해를중지하고 만난을 무릅써서 구조해가지고 원산으로행하야 측행하야온것이라는데 지난이십구일 원산경찰서장은 문평에 들어와루지호선장에 감사의외를 표하는동시 구조된 어부두사람을 바다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이 난파된 경로를 들으면 고웅(高雄)을 떠난 전긔중승외 여덟명이탄 제삼순복환(第三順福丸)이 멀리떨 원해에서 고기를 잡고 잇슬때 난데업는데풍이 부러와、배가 산산히 께여저서 다른 일곱사람은 빠저죽고 전긔 두사람은「로ー프」로 몸을 매고 난파선에 의지하야 여섯날 밤을 황파(荒波)와 싸우다가 와루츠호에 발견되여 구조되여 구사일생에 살어낫다고 한다

東海北部線復舊엔 所要人夫三千名

交通通信杜絶로被害程度未詳

元鐵에서復舊隊急派

【元山】 지난이십칠일밤부터 퍼부어온 폭우로 인하야 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에는 선로의류실도는동괴、교량의 파손이 만허서 흡곡(歙谷)과 간성(杆城)간은 지금도 렬차의 운전을못하고잇다 그리하야 원산과흡곡간만을 겨우 운전하고잇는 현상이다。 자세한 피해정도는 통신련락의 두절로 잘알수업스나 송전(松田)고저(庫底)장전(長箭)등연선이 가장피해가 만흔모양으로 그피해개소만도 백개소가 넘으리라고한다 이에 원산철도사무소에서는이십팔일밤 배편으로 통천련락복구게원수명을 위선 장전에보내여 고성(高城)과 원산간의 종선복구를 하게하는 일방이십구일 아침에는 림시인부로 삼백여명을 모집하야 공무(工務)보선(保線)운전(運轉)삼과원이 대동하고 현장에 급행하얏다

이리하야 발분복구공사에 맹렬한 활동을 하고잇스나 줌처럼 속히실현되지못하리만큼 피해가 큰모양으로 이것을 복구함에는 인부가 약삼천명 침목(枕木)이약일만본、가마니(叺)가 적어도 오륙만매나 잇서야되리라하니 가히 그피해정도를 추측할수잇다고하며 떼묵히 외금강(外金剛)까지는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하로밧비 개통하도록 주야겸행으로 노력하고 잇스나결불면통으로 가선(假線)부설에 선개통시키는 아직가라서는 예상까지、불허한다고한다。

求禮地方農土被害

勿驚六千五百町步

求禮名産인煙草도全滅狀態

損害總額卅餘萬圓

【求禮】 풍속칠백사십미리와세시간반동안에 이백오십미리의 비를퍼부은 구례지방의폭풍우는수십년래처음보는 대참변이잇는데 이제 이십구일정오까지에 판명된 농작물의 피해상황을 조사하여보면 피해총면적 륙천오백정보에 그손해액은 삼십이만원이라는 방대한 수자에 이제다사금 아니놀낼수업고 아죽 산간벽지에는 조사할길바이업는데 특별이구례지방의 특수산물로 년산 륙만원의 당배는전멸지경인데를상한화전민(火田民)들의 생활은 거는 완전히파단되여 더한층처참하다고한다

▲被害狀況은如左
一、浸水三百九十八町步
二、流失十町步
三、埋沒十七町步
四、風害六千五百町步
五、水稻被害十八萬六千圓也
六、陸稻 八萬圓也
七、陸地棉 二萬圓也
八、豆類 二千圓也
九、雜穀 一千圓也
十、煙草 四萬五千圓也

倒壞家屋廿餘戶

土旨、馬山、光義에도

僻地被害는尙未判明

【求禮】 미증유의 구례지방태풍폭우는 조사가 판명되는대로 간담을 서늘케하는데 이십구일정오까지에 조사된것만에 의하드래도 상상이상으로 참혹한바 이제 그대강을 들면 간문면(艮文面)등지에 인명의 사상이 허다한 모양이나 교통이 상금불통되야 여기에는 구례(求禮)토지(土旨)마산(馬山)광의(光義)산동(山洞)오개면피해만을 보면 가옥의 류실급 전반궤가 이십일호요 갈데를데업시되여 목전에 구급을 요하는 호수가 이십호에 리재민이 백여인이요 가축의죽은 손실이 삼십오이다

그다음 도로의결괴가 칠십오『미돌』에 파손이 십삼개소 교량의 류실이칠개소 제방의 결괴가 이십개소에 그면적이 오백미돌이다

이제 전군피해의 귀여관계를 본다면 중부이하남부가 태심하고 간문면을두로한 산간지방아가장 참혹하야 상전이벽해가 되엿는데 아즉조사키 불능하다

華嚴寺獅子塔危機

【求禮】 이십칠일 맹렬한폭풍우로인한 구례지방의피해는 각방면을 통하야 막대하거니와 조선삽십일 보산중에서도 유수한 화엄사(華嚴寺)경내에잇는 지정보물제일백오십일호로 삼층사사자석탑(四層四獅子石塔)밧압돌담에서 그부근 탑전(塔殿)동편일부 염불방(念佛房)까지에쪽이 사십미돌과 둑게오미돌이상이 산봉으로 도궤에직면하엿다

元山稅署事件益進展

府土木係에飛火

廿九日에는土木係員某를取調

事件趨移가注目處

【安邊】 긔보=원산세무서의옥사건(元山稅務署疑獄事件)은 저간 안변경찰서의 긔민한 활동과터부러 신문지상에 속보도 할미암아 사건전개가 백열화하여 폭로되며 방금세민의 이목을한것 집중하고잇는터인데 동서에서는 사건발생이후 외인의 출입을절대엄금한뒤에 사법실(司法室)을 굿게닷고서 계원총동원으로 밤을 새워가며 취조를계속하고잇는바 지난이십구일에는 또다시 별개지엽으로 중대사건의 단서를 잡앗는지 원산부 토목계원(元山府土木係員) 대장모(大場某)를 금급히소환하야 극비밀리에 방금 취조를거듭하고잇다

그런데 동서에서는 사건여사건이라 신문긔자의 면회까지회피해가면서 사건의 엄부나마전연루설지안홈으로 취조의 내막을 상세히는 알길이업스나 측문한바에 의하면 수일전에 류치되원산마루요시(丸芳)상점종래량(上田宗太郞)은 류리점외에정부업까지 경영하고 잇다는니만큼원산부토목계와의 어떠한마이잡재하지나안는가하야 전긔대장모의 소환까지 보게된것이라고 한다

○○團員이出現

住民三名拉去

楚山郡央土對岸에서

【新義州】 이십칠일오후다섯시경 초산서앙토(楚山署央土)출장소대안중안현제삼구령수천자하구 다룽동(寬甸縣第三區令水泉子下監溝洞)(江岸에서約一里半)에 ○단제일대장 김창희(金昌禧)의 부하 다섯명이 나타나서 윈원석곡면동)김모외 두명을 잡아가지고산중으로 도주하엿다한다

本社元山支局을經由

水害同情金遝至

【元山】 지난번 삼남급령동지방을엄습한 대수해로 팔미암아수만호리재민이 생활의 위협을당하고잇슴은 매일과가티 신문지에 보도되는바어니와 이러한비참한 생활을하는 수만호리재민에게 적으나마 그들구제에 보태여써달라고 본사원산지국에는 아름다운 동정금이 답지하고잇는데 지난이십구일에도 원산해성보통학교(海星普校)선생급 아동일동이 금십오원이십팔전을재저로 전달하여달라고 의뢰하야왓고 또한 덕원군적전면당우리(德源郡赤田面堂隅里)급 락수리(洛水里) 무라리(武羅里) 룡계리(龍溪里)등부락 여러유지가 다음과가티 본사원산지국에 동정금을 가저왓다

一金十八圓五十七錢
內譯
德源郡赤田面堂隅里
▲一圓式朴承東 朴承鍾 康浩鎭 朴浩秉 康信玉 康龍九▲五十錢式無名氏 朴瑞秉 朴必秉 朴承五 宋德淵 金鎭七 朴吉秉 朴容九 朴承均 朴仲秉 朴聖秉 鄭海運 黃道常 康周鎬 ▲四十錢 崔尙鉉 ▲三十錢 朴瑚錫 康鴻俊 宋英浩 朴容國 宋東燮 ▲二十錢式 李庚鳳 崔蓮明 朴承玉 金春善 趙永祿 朴夏秉 金庚治 宋天浩 康元鎬 崔明善 金明熙 ▲十錢式 朴承基 朴仁秉 康應鎬 趙熙萬 鄭秉勳 宋戊柱 ▲十五 李庄淵 元永斗 朴光秉 崔泰元 康好善 ▲五錢式 李貞部 朴允秉

一金 四圓六十五錢
內譯
德源郡赤田面龍溪里
▲一圓 劉賢周 ▲五十錢式 林昌俊 姜文浩 ▲四十錢 李仁培 ▲三十錢式 韓鳳鎬 李鑑輝 ▲二十五錢式 韓戊鎬 李亨培 李國輝 金仲鎬 韓承玉 ▲十錢 李炳彦 ▲五錢 朴浩秉

金一圓十錢
內譯
德源郡赤田面洛水及武羅里
▲五十錢 金利衡 ▲三十錢 南炳鉉 ▲二十錢 金昌浩 ▲十錢 朴永俊

德源川氾濫으로 千餘町步浸水

【元山】 이십오일저녁부터 오기시작한비는 강풍과 아울러 큰비를 쏘다저서 원산일대에는 아연 대수란을 일으켓는데 덕원군부내면(德源郡府內面)을가로흐르는 덕원천(德源川)과 방하천(防河川)은 급격히 증수되어 이십칠일에 일대는 드되어 범람하여 그류역의전답과 그하류에잇는 적전면송중리(赤田面松中里)일대에 처음부터 전답이 침수되어 손해가 막대하며 송중리에 이르러서는 서위에를로포위되어 교통이 극히 위험하엿섯다 이십팔일 수미의포각으로 발미암아 겨우술을 를리게되엿는데 이외에 각처피해상황을 조사중으로 불원에 속속 판명되리라고한다

楊平郡某面會計員

公金四千圓橫領

京城에潛伏中被逮

【楊平】 지난팔월이십오일경 양평경찰관 서와면주재소 경관이 출연경성방면에 출장하야 양평군서와면 회계원(楊平郡西宗面會計員) 리모(李某)가 도망하야 잇는것을 검거하야 양평경찰서사법계에서 엄중히 취조를 계속중인데 탐문한바에 외하면 전긔리모는 해면에 수년간면서긔로 잇섯는데 작년일월부터회계사무(會計事務)를 담임한이래 금년팔월까지에 해면주재소급학교 신축기부금 기타잡종금등합계사천오백여원을 횡령하야 동면소재지급 경성방면 각주점과 기타에서 소비하엿다는데 이것이 폭로될가 염려하고 그와가티도망한것이라한다

祭酒에醉하야 渡江타가溺死

【谷山】 지난 이십팔일 곡산군 청계면 문양리(淸溪面文陽里) 김유명(金允明)(三五)은 동면청송리(靑松里) 어떤 친구의집 제사에 가서 술을 만히 먹고 술에 취하야 강을 건너 자긔집으로 도라오다가 원래 물이 중수되고 술이 취한탓으로 그만 실수하야 빠저 죽엇다 한다。

激流에自動車顚覆

乘客二名이死亡

濟州島沙水川에서

【濟州】 긔보=제주도는 련이일계속하야 내리는 대폭풍우로인하야 평상시 고갈하여잇든 냇물이급격히 범람하야 교통이두절되고 연안의 인명과 농작물에일대위협을 주고잇는데제주읍과모슬포(慕瑟浦)간의 서부선로는이십일일오후두시 정긔차(定期車) 오륙이호(號)운전수 리계형(李桂衍)(三○)이가 정긔시간보다 느저서 비바람이 들불때승객륙명을실고 모슬포(慕瑟浦)로 향하는도중 읍내를 거하기일리가량되는 사수동(沙水洞)과도두리(道頭里)경계선인 사수천(沙水川)을건너든중 불행이도 급격히 내려오는 냇물에 자동차는 드듸여 전복되어 떠지어시 파괴되엿는데 급보를 접한리민들의구조의손은 빼첫스나 격류가 너무나 심하고 시간이 느저서 승객중 겨우사명과 운전수만구조되엿고 두명은 격류에 부다처흘러내려가서 구조해내지못하고 시체조차 찻지못햇다하며운전수리계형(李桂衍)은 호수상태에빠저 방금 제주도립 의원에서응급치료를 밧고 잇다는바씨명은 다음과갓다한다

李昌國(四○)濟州島舊左面新嚴里
玄圭夏(三○)濟州島翰林面歸德里

稀世의少年窃盜

巨額窃取自白

【平壤】 일정한주소가 업는 신태근(申泰根)(一七)은 어집팔일평양서에 절도범으로 체포되여취조를밧고 잇는데 이자는 금년칠월초순에 사리원역전 어떠한 잡화상점에서 금품을 절취한것을 위시하여 경부선(京釜線)경의선(京義線)연선역대를 무대로 영등포(永登浦) 금촌(金村) 경성(京城) 수원(水原) 오산(烏山) 룡산(龍山) 수색(水色) 의정부(議政府) 토성(土城)등지에서 전후 어십구회 수천원의금품을 절취한것을 자백하엿다한다

◇…統營灣에避難하얏든七百餘隻漁船이暴風雨에散散히破壞된慘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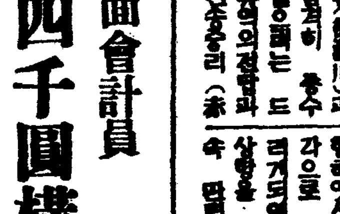
安東縣

水害救濟慈善演劇

◇時日 三十日부터五日間
◇場所 中央키네마
◇出演者 樂浪劇團四十餘名
◇後援 朝鮮日報社安東縣支局

地方人事

▲李…氏(…)上京
▲…氏(…)新任人事次 本社平壤支局



愛慾의彼岸 【89】

李光洙 作
金康禮 畫

그래도 혜련은 반가운 강선생을 본톨라고 긔뒷 하는 소리가、

「저의 잇는데로 가세요、선생님 아버지도 와 계십니다」

하엿다。

「응、도 만날 때도 엇지」

하고 강선생은 종덕을 돌아보며、

「자 가세、그렁 덕원으로 가서 수도원 구경이나 하고、덕원서 차를 타세 그만」

하고는 다시 혜련의 겨드로 바싹 다가 서서 혜련의 머리와 얼굴과 원 몸을 자세히 보며 참아 눈을 떼기가 어려운드시 한참이나 주저주저하다가、

「혜련이 배가 잇지안형。 잘잇서」

하고는 몸을 픽 돌려서、혜련이가 인사엣 말을할새도 업시 동독쪽으로、거의 다름바질하다시피 걸어갓다、

혜련은 멧걸음 따라가다가 눈물이 아플 가리워서 더 가지 못하고、얼마잇다가 덕원으로 가는 다리쪽을 바라볼때에는 강선생과 종덕은 벌서 긴、나무다리를 반이나 넘어 건너간때엇다。 노픈다리우에서 푸른 풀판과 산을 배경으로하고 아침햇볏을 모으로 바든 강선생의 모양은 마치 희인으로 지진것가리 혜련의 가슴에 돌여바혓다。

혜련은 두 사람을 향하고 손스수건을 내어돌럿스나 두 사람은 보앗는지、못 보앗는지 다만 단장을 내어두를뿐이엇다。

「덕원수도원이면 나도 따라가볼걸」

하고 혜련은 다 지난 뒤에야 어런 생각을 하엿다。강선생의 아페 잇슬 때에는 그러한것을 생각할 여유가 업섯던것이다。

혜련은 두 사람을 꼭 따라가랴는것도 아니언마는 빠른 걸음으로 다리목까지 왓다。 그러나 그때에는 강선생의 그림자는 뽕나무밧 그늘에 살아지고 말앗다。 혜련은 다리에 한 발을 내어되되고는 마치 금지를 당한 사람모양으로 우두머니 서 잇섯다。 이 다리는 건너가서는 아니 되는 다리、이 다리 건너편에는 알수업는 어떤 세상이 잇는것 가텃다。

「그리기로 어쩌럼 코화」

하고 혜련은 벼로소 정신이지장을 일어버리고 매지 발을러서 다릿란간에 몸을 기대어섯다。 아피 아독아독하는듯하엿다

복숭아、옥수수、도마도、맥、이런것을 머리에인 부인네들이 다리로 지나가며 혜련의 모양을힐긋힐긋 보앗다。 그중에는혜련의 집에 도마도를 팔러오든 키다리 마나님도 잇서서、

「아이고 어찌여기 오셧소?오늘 옥수수라 조라어」

하고 머리에 인 함지박을 혜련의 아페 내려노호랴는것을혜련은 눈질、손질로 어서 내리지말고、말도 말고 가지고 가라는 뜻을 표하엿다。 키다리마나님은 못 마땅한드시 혜련을 흘려보고는 무에라고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내려노호랴던 함지박을 도로이고 압서간 동행들을 따라서 무릅까지빠제는아니치는 굵은 베치마를 너풀거리면서 송아리ㅅ동네로 향하는 길로 가버린다。

그리고 난 뒤에는 한울과 땅、다시 고요 해젓다。바다와강과、풀판과、솔밧과 소와 송아지와、돗달고 저어가는 배、그리고 벌레소리。다릿 난간에 몸을 기대인 혜련의 눈에는 오륙년래의 광경이 요지경모양으로 얼른얼른 저나갓다。

아까 강선생이 작별할 때에 혜련을 물끄럼히보든 눈ㅡ바로 그 눈이다。오번이 저낫것마는 그 눈은 변함이 업다。아모악의도 욕심도 엽서、따뜻한 봄스바다와 가튼 눈 그 눈을보면 서낫든것도 풀어지고 손、발못하지 온귀가 돌아가는듯하엿다。강선생이 교실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도모지 소리가 업서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눈이 언제나 내 우으로 굴러가라?하고 아이들은 초조하게 그것을 기다렷다。혜련의 생각에는 강선생의 눈에 제게로 향하기를 가장 기뻐하는것가티 생각하엿다。

강선생의 목소리도 조화하엿다… 근하고도、위엄이잇섯다。 적게다 빼는것이 업고 가티 청천한중에는 … 원엄이 잇섯다。 W여학교 … 이엇다。 … 배와 대상이 … 니엇다。

經濟解說

今後米穀事情

新年度前後考察

●……申泰璥

今年의 稻作을 어떠케보가야하야 이미 農林省으로부터 八月十五日現在의 日本內地稻作은 平年作豫想을 發表하엿고 또 朝鮮內稻作에 잇서서는 亦是八月十五日現在로 總督府農林局으로부터 平年作豫想을 發表하엿다 그러나 八月十五日後 朝鮮에잇서서 豐作을 豫報하든 京城以南에는 水害가 激甚하야 그發表의 平年作豫想을 維持케되엇슬뿐만아니라 압흐로 颱風襲來이 지내간뒤의 水害實相에 따라서 朝鮮稻作이 얼만큼이나 되엿슬는지 判明케될것이다 그러므로 이번朝鮮의 水害程度如何가 稻作에 注目을 끄는다 이에잇서 目下米穀界情에 對하여서 또는 新米穀年度에對한 展望을 하여보고자한다。

×

今年米穀年度로 九月과 十月로 二個月이 남어잇슬뿐이다 米穀界의 마지막고개를 넘으려하고 잇는판에 今年米穀年度의 總決算과 不遠에 展開될 新米穀年度의 米穀自治管理法의 發動與否에 對하야 關心을주게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昨年十一月부터 今年十月까지 그동안 消費하고 남은쌀이 얼마가량으로되야 新米穀年度에 너머가게되나 또는 新米穀年度에 잇서서는 그너머온쌀과 新米總量을 合하여가지고 그年度의 需給關係가 不圓滑케될가 或은 大過剩의 數字를 豫想케될가 그러고 지난特別議會에서 通過된 米穀自治管理法을 비롯한 發動케할 過剩米의 數字로 發動하야 그發動에 안일或은 需給數字일가 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點이다。

×

이에잇서 먼저 지금에 쌀이 얼마만한 程度의 數量이 남어잇는가 하는 것을 보자 即 지난 廿五日 米穀統制委員會에서 最近의 米穀事情에 對하야 荷見米穀局長이 報告한것을 보면 다음과갓다

一、政府所有米現在高(七月三一日現在) [illegible]

十一日現在 石 斗 / 七年產米 / 八年產 / 九年產 / 十年產 / 小計 / 日本內地白米 / 朝鮮八年產米 / 臺灣八年 / 同九年 / 合計 [illegible]

一、米穀輸入許可數量(昨年十一月로부터七月까지) 日本內地 / 朝鮮(同) / 臺灣(同六月까지) [illegible]

一、米穀輸出許可數量(昨年十一月로부터八月上旬까지) 日本內地 / 朝鮮 / 臺灣 [illegible]

▲移入高(昨年十一月로부터八月上旬까지) [illegible]

▲移出高 / 朝鮮에서의 移入 / 臺灣에서의 移入 / 樺太에 移出 / 朝鮮에 移出 / 南洋群島에 移出 [illegible]

그러고 九十의 兩月間을 지내여 十一月 即新米穀年度로 넘기쌀을 얼마로 잡는가 하면 九百萬石 豫想이다 그러므로 以上의 數字에 依하야 在米高의 大部分이 政府所持米이므로 結局 次米穀年度로 너머가는 쌀中에는 政府所持米가 그大部分을 占케될것은 다시 疑心할餘地가 업다 그러므로 今年米穀年度에잇서 消費하고 남는쌀이 九百萬石에 達하는 滯貨米를 不拘하고 民間의 米價는 不斷히 올라가는 理由가 이곳에잇는것이다 그러서 지난廿五日農林省에서는 政府所持米는 新穀期에 다시 사드린다는 條件附로 政府所持米의 一部를 내여팔기로하고 그中 爲先五十萬石을 實現함에 순을 대엿다 그러나 오늘에잇서 固定된 政府所持米가 在來高中 相當한 比重을 占하는 만큼 적은것보다도 米穀自治管理法이 今年米作을 合한 數字가 果然 米穀豫算에 이를가 或은 發動케할 範圍에 이를가 하는 것은 못이르게될가 함이 가장 重要한 注目點이 아니될수 업는 點이다。

―(續)―

米自治管理法 發動與否注視

그施行令을八月閣議에附議

農林省見解不一致

【東京電話同盟】米穀自治管理法의 施行令은 九月八日의 閣議에 附議決定할 豫定인데 果然 十一月로부터의 次期米穀年度에 發動을보게될는지 注目된다 同法에 依하면 十一月中旬 日本內地朝鮮臺灣을 通하야 米穀收穫豫想과 十一月一日의 米穀現在高를 基礎로하고 消費豫想高와 次期米穀年度에 持越하야 適當하다고 認하는 數量을 「需要」로하고 그結果 過剩數量이 생길 豫想의 境遇에는 同法을 發動할수잇게하엿다 發動할 過剩米의 限度에 對하야는 特別한 限度가 업고 또 同法으로 米價가 어느程度까지 떠러진 境遇에 發動할가에 關하야는 明示치안흔바 「日本內地米의 價格이 米價統制法의 標準最低價格에서 一割程度 値上한 境遇에 過剩米의 貯藏을 解除한다」는 裏面解釋에 依하야 米價標準最低價格의 上價一割을 下廻한 境遇에는 當然히 發動케될것으로 觀測한다 島田農相이 二十七日 『稻作』이라고 發表한 水稻作況에 基하야 今年度收穫高 六千萬石을 多少 너머슬程度이므로 自治管理法은 發動할 必要가 업슬는지도 모른다고 二十八日의 閣議에서 說明하엿슴에 對하야 農林事務當局에서는 數理的根據에 基하야 同法發動의 必要性을 밋고 準備를 하고잇슴은 注目된다 (以下單位萬石)

▲供給

豫想收穫高	六、一〇〇
朝鮮에서移入	九〇〇
臺灣에서移入	五〇〇
前期持越高	九〇〇
合計	八、四〇〇

▲需要

消費豫想高	七、二〇〇
次年度持越高	九〇〇
計	八、一〇〇
差引過剩米	三〇〇

朝鮮酒稅令改正

九月一日에實施

◇……新稅率의內容

三十一日付制令第十四號로서 朝鮮酒稅令의 一部改正이 잇고 九月一日부터 實施키로되바 이번의 改正은 從前의 酒稅가 單純한 比例率制로 하든것을 酒精二十度를 分界로하는 複稅率制度로 改正하야 酒稅納稅에잇서서 負擔의 公平을 期하얏는데 이로써 製氷增加를 目的하는 濃醇酒及 再製酒는 合理化될 豫定이라한다 即新稅率은 다음과 갓다

▲釀造酒―(一) 酒精分二十度以下의것은 現行稅率과가티 三十三圓 (二) 酒精分二十度를 넘는것은 一石三十三圓 酒精二十度를넘는것은 一度마다 一圓을 增加

▲再製酒―(一) 酒精分二十度以下三十三圓 (二) 二十度를넘는것은 一石에三十三圓 또 一度를넘는때마다 一圓을增加

그러고 最近淸酒界에는 新淸酒等이라稱하야 普通淸酒의 酒精分이 十六度 乃至 二十度되는데對하야 알콜을混有가 濃度이것을 賣出하야 販賣人의製水에依하야 再製酒로서 賣出하야 普通淸酒와 同種의 稅率適用을 受하는者續出함으로 九月一日부터 酒稅令改正에 依하야 새로 課稅가 酒精含有도 參酌하는 複稅率制로되기때문에 그新酒販賣의 不合理한 傾向은 根本的으로 一掃되리라한다

下旬對外貿易

出超二千三百萬圓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에依하면 八月下旬 對外貿易概算調査는 다음과갓다 (以下單位千圓)

輸出	九五、六九二
輸入	七二、〇八七
合計	一六七、七七九
出超	二三、六〇五

一月以後入超累計 一六四、七五五

白金一匁三十圓

歐洲大戰後高價로

最近의 白金市勢는 三十一日 京城市中市勢가 賣價三十圓 買價二十四圓으로 또暴騰되엇는데 白金一匁三十圓은 歐洲大戰以來의 高價를 示現한것이다

北滿投資總額

二千四百萬圓

滿洲事變後 日本內地人의 對北滿投資는 貿易關係의 商事會社進出及 新興企業인 日本酒釀造及 洋灰等이잇고 또 最近機械工業의 進出計畫도 傳하는데 現在의 北滿日本內地人 投資會社는 四十七社 資本總額 二千四百六十二萬圓인데 그業種別로 다음과갓다고

▲取引所信託二▲商事二一▲釀造業四▲食料品工業三▲製材二▲土地建物八▲鑛業一▲運輸二▲雜業三▲窯業一

金本位再建要望

政府民業干涉排擊

米國商業會議所에서

【華盛頓二十九日發同盟】米國全土에 亘하야 次期의 大統領選擧를 十一月三日에 앞두고 朝野의 政治的關心이 노파가는 이때에 米國商業會議所는 아마 政治的意見을 包含한 聲明書를 發表한바 그中에잇서

一、政府의 民間事業干涉을 排擊하는 同時에 金本位再建을 要望함

이것은 一千四百의 會議所議員 七十萬人의 各種經濟團體會員의 贊成을 어든것인만큼 그趨勢가 注目된다고한다

製絲協會總會

基準價協定協議

朝鮮製絲協會에서는 一日總督府會議室에서 열고 夏秋蠶基準價格協定에 對한 卅一日 午前中에 役員會를 同午後三時부터 總會를 열고 製絲家側의 態度를 協議한바 結局 一日의 會議에 大野新政務總監이 出席키로 되야 互讓의 精神으로서 一日會議에서 될수잇는대로 協定케할 方針을 決定하엿다 協定價格目은 大體 昨年夏秋蠶基準價格과가튼 程度될모양이라고。

無煙炭移出增

朝鮮內產無煙炭移出은 軍需工業의 活況과 發電用炭의 需要激增에 依하야 移出이 激增하고 今年은 昨年보다 十萬屯內外의 移出增加豫想으로 一面市勢도 有利하게 強調이므로 朝鮮無煙炭會社等은 이로因한 利益을 新事業에 充用할 方針이라고한다

無煙炭總會

朝鮮無煙炭會社에서는 卅一日 午前十時부터 第十九期定期總會를 열고

一、上期諸決算案承認의件

二、利益金處分案의件 (年九分配當)을 承認하고

三、取締役一名 監査役一名缺任에對한 補缺選擧의件

取締役에는 山本定次氏(三井物產石炭部長) 監査役에 大塚俊雄氏(三井物產京城支店長)를 選任

四、監査役一名增員選任의件

須藤素氏(元慶南知事)를 選任

五、退職取締役及監査役에 慰勞金贈與의件等은 取締役會一任으로 決定하고 同十時三十分에 終了하엿다고

煉炭値上

官製、會社製

九月一日實施

朝鮮煉炭과 海軍燃料廠에서는 協議한뒤 九月一日부터 다음과가티 煉炭의 値上을 하고 即日實施키로되엇다고한다

	新價	比舊價
▲海軍		
角型	二〇、六〇	一〇錢上
마세크	二〇、一〇	三〇錢上
▲朝鮮煉炭		
角型	一八、八〇	三〇錢
마세크	一九、八〇	五〇錢

即値上의 理由는 핏치의 品不足으로 因한것인데 그中핏치는 昨年보다 噸當 十圓(製品噸當 一圓三十錢)의 昂騰이라고한다

▲人事異動

朝鮮金組聯合會에서는 八月三十一日附로 左와如히 人事異動을 發令하엿다

▲命庶務部長(理事) 齋藤淸治 ▲命金融部長(同)本田秀夫 ▲命京畿支部長(同)山根讓 ▲命忠北支部長(同)眞鍋敬介 ▲命忠南支部長(同)江口辰茂 ▲命全北支部長(同)崎山健次 ▲命全南支部長(同)馬場五郎 ▲命慶北支部長(同)松本節郎 ▲命慶南支部長(同)牟田口利彦 ▲命黃海支部長(同)關田源太郎 ▲命平南支部長(同)須藤正而 ▲命平北支部長(同) 岸田虎一 ▲命江原支部長(同)山縣半介 ▲命咸南支部長(同)岡今治郎 ▲命咸北支部長(同)藤本開三

▲九月煙草製造豫定

數量=專賣局九月分煙草豫定數量은 口付合計一千二百萬本、兩切合計四億七千三百四十九萬本、荒刻合計一百四十一萬九千二百十二瓩으로 八月分製造數量보다 兩切一千百四十萬八千本、荒刻七萬五千八十二瓩의 增加이다

取引停止 (八月二十七日)

京城府蓬萊町一丁目六二番地 高麗工業社 朴俊景

經濟界消息

○朝鮮石油會社에서는 九月八日午前十一時 元山工場에서 同工場의 竣工式을 擧行키로되엇다고

経済寸鉄

世界軍擴에 伴하야 白金一匁三十圓也 歐洲戰以來의 高價라고

○ 軍擴의 好影으로 白金價暴騰엔 朝鮮人에게 無關이나 石炭價가 暴騰되니 앗질

○ 昨年도 石炭飢饉으로 大困難이엇는데 今年은 장마도 거치기 前부터 燃料飢饉이 되겟하리란 소식

○ 大衆에게 주는 軍需景氣의 影響은 우선 아궁지에서부터 窮乏을 주나보다

重要商品界事情

人絹聯合紛糾

畢竟激化의狀態

商工省의 裁定에 依한 昭和大阪商社의 加盟問題를 圍繞하고 人絹聯合會內에 委員會社(大會社)對 普通會社(大會社 中小會社)의 對立은 前回以來 二、三의 妥協工作도 何等奏効치못하고 드듸어 委員會社가 聯合會를 脫退하고 人絹聯合會는 危機存亡之秋에 陷入케되엇다 한쪽은 統制에 依한 利益의 擁護이오 한쪽은 生命線의 確保이다。 一致되엇든 步調가 商工省의 裁定에 따라 中小會社의 要求가 紛糾하야 激烈한 以上 內部의 摩擦이 徹底히 解決될 可望이 업고 最近까지 對外問題(印度)로 商工省의 斡旋을 必要케하는 狀態로 되엇다。

卽人絹聯合會는 委員會社總辭로 帝人 倉絹 東新 福島 庄內川 東京人絹 東洋레온의 七委員會社를 持하야 時局收拾對策을 立案하고 臨時總會에서 正式決定後 다시 新理事會社를 選任할것이며 第二部 스테-플·화이바關係의 理事會社選擧의 結果 東洋紡 日東 鳥人絹 東洋레온의 四社가 當選되어 此等理事會社中에 依하야 現會社中 第二部未加盟의 加盟을 勸誘하는 同時에 擁護되는 人造纖維工業會의 人造纖維一元的統制와 連絡을 取키로되엇다。

以上과가티 委員會總辭職後의 人絹聯合會는 時局對策委員會의 選任에 依하야 危機는 免한것가트나 對策委員으로서 庄內川、東京人絹、福島人絹의 登場에 依하야 對策委員會內의 紛糾는 避免이오 更히 猛烈히 纖維의 統制問題와 關聯하야 時局對策의 立案이 遲延되면 目捷에 迫到한 十九日의 操短決定이 不可能케되어 人絹界는 未曾有의 混亂에 入할 形勢가 잇다

東新將來研究

事業株와의關係

一般事業株의 價位로 昔日의 東新을 評價하려면 百六、七十圓 乃至 二百圓이 相當할터인데 現在百卅圓臺로 正히 四十圓乃至六十圓의 低價라 할수잇다 東新과 事業株와의 隔開가 東新의 特殊事情에 因한것이라면 그特殊事情이 解消되는날 即 取引所改革問題가 當所株上場禁止가 되는데 至치 안는날 지금의 價値가 訂正될것이며 東新은 投機抑壓에 依하야 永久히 復活되지못할것이라면 再建할 餘地가 업슬것스나 將來性을 否認치안는다면 相當한 活躍을 期할이 當然하다할 것이다

東新의指導性

恢復과賣方焦燥

當限納會頑強으로 秋高 市勢一服濃厚하고 國策具體化와 明年度豫算編成에 依하야 東新은 財界의 指導性을 恢復할 可望이 잇서보인다 好勢가 繼續되면 天井不知의 好勢가 維持될것으로 東新買方에는 安心이잇고 賣方은 株高를 보고 焦燥氣分이잇서 注目된다

株式 新南待로 伸惱

商況 (卅一日)

前場堅保 休日을 지나 今前場은 月末戰이나 平凡하엿스니 即 再昨引에 比하야 東新三十錢高인 百二十四圓四十錢 日產二十錢高인 七十九圓二十錢 日魯二十錢低인 六十六圓八十錢 朝新不變인 三十一圓八十錢에 各大引되고 鐘新百六十四圓四十錢 北紙二十四圓五十錢 日石 七十七圓 拓新二十三圓九十錢이엇섯다

後場伸惱 下旬貿易二千三百萬圓의 大出超好感으로 東新寄高이엇스나 新南待傍觀으로 伸惱에 東新百卅四圓四十錢、鐘新百六十四圓九十錢、에 各大引되고 朝取七十四圓丁、朝新卅二圓八十錢、大新六十七圓四、五十錢 日產七十九圓廿錢으로 九圓丁、日產新廿六圓六、七十錢、安取七圓七十錢、拓新廿四圓五十錢、朝石卅六圓卅錢으로 六圓丁

▲東新 三三圓(寄) [illegible] 三三圓(引)

今日財界 (卅一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 大阪期米 先限 / 正米(仁川)一等 / 一斤(仁川) [illegible]

◆市中金融 / ◆株 東新 / 鐘新 / 日產 / 大阪綿絲 / 大阪棉花 / 大阪人絹 / 大阪砂糖 / 고무FAQ [illegible]

日產反撥胚胎

最後엔東新爆發

日石의 百圓이 買方의 目標인 모양이나 日產이 큰市勢를 胚胎한것같다 事變의 時代性보다 不人氣에 재미가 간절하야 拓新이 買込한다는 大阪筋의 買込以來의 新高價로 大正十五年以來의 暴騰으로 買込의 大反動이 잇슬것이오 最後에는 東新에 爆的大反動이 잇스리라는 强氣論이잇다

實物前場取引

(取引高二三〇枚)

▲日滿아르미 七七三〇▲日產고무 三六五〇▲日立製作新 九七五〇▲라사工業 八九〇〇-五〇〇▲라사工業新 三七〇〇▲帝國製糖 八五五〇▲朝日鑛業 一七〇〇▲國產工業新 三〇五〇▲日本曹達 三〇五〇▲滿洲電信電話 二四五〇

拓新新高價續騰

拓新은 今後場에 二十四圓五十錢에 新高價를 낫다。 纖維株에 儲買氣가 擡頭되어 拓新에까지 滲透한건데 高山總裁辭任說로 未確認記事까지 云爲한다하나 過高의 感도 不無하다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諸情勢沈滯로 新規買人氣가 鈍하여 至치못하고 再次保合狀態이엇다 外債도 高價는 買物不續이오 米貨債는 五錢低로 區區이엇다 五分半 一〇一一五 佛貨四分 一甲五分 九八三五

大阪國債市況

▲甲五分 一〇一、一四▲第三五分 一〇一、六八▲一回四分 一〇二、四三▲佛貨四分 一九八、三八▲米貨四分 四二二、七五▲滿洲公債 一〇〇、三〇

十一限發會와

今後米價觀測

明一日은 新十一限이 發會하게되는바 此限도 例年同期와如히 七、八十乃至 八、九十丁의 下鞘로 發會하는모양이다 此邊位置로하고 此에서 八、九十丁 下鞘로 十一月限이 發生한다하면 二十九圓五、六十錢臺를 演出하게되며 따라서 그位置는 今年三月의 市勢를 恢復하게될으로 目前米界의 事情으로보아서 그以上의 低落은 期待키難할것으로 觀測하는모양이다 即日本內地는 二年繼續의 凶作으로 今年의 米作은 겨우 六千萬石을 豫想하게되며 朝鮮은 平年作도 못될 形勢일뿐아니라 今年은 農家의 方針이 新米時代부터 實淸不賣할 것을 足히 豫想할수잇슴으로 十一限의 發會를 昂하야 가라리 買戰을 하는것이 得策이 아닌가하는 商議이 多하다

各地新甫鞘豫想

明一日에 發會될 期米十一月限은 大阪八十丁下鞘를 비롯하야 各地모다 如左히 下鞘豫想이다。

▲東京五十五丁▲京都七、八十丁▲下關七十丁▲名古屋七、八十丁▲仁川六、七十丁▲大邱八十丁▲釜山 群山二、三十丁▲木浦五十丁

朝鮮米作悲觀

再次風水害로

總督府農林局發表에 依하면 本月十五日 現在朝鮮稻作狀況이 概히 平年作으로 그後의 天候만 良好하면 平年作은 無難할것으로 豫想되든바이나 其後의 霖雨로 繼續하야 全朝鮮에 亘한 稻作被害가 不少하든 곳에 去二十七日 全南麗水에 上陸한 颱風이 慶南北과 江原道一部를 掩襲하야 豐作을 謳歌하든 三南地方이 再次風水害로 人命、家屋又는 農作物에 至하기까지 非常한 慘害를 입은모양으로 去十五日의 稻作豫想과는 顯著한 差異가 잇슬것갓다 아즉 具體的調査가 없음으로 그被害의 程度는 알수업스나 朝鮮의 平年作이 되지못할것만은 事實일것이다 日本內地米作을 六千萬石으로 豫想한다하면 昨年과의 큰差異는 업다 그러나 市勢는 來月의 天下到達會와 共히 그다지 實戰할 餘地는 업슬것갓다

仁川在米減少

本月廿九日 現在仁川在庫米는 前週에 比하야 合格米 一九、三八七叺의 減少를 示하엿는데 在留를 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四斗入 一五〇、二四六叺 五斗入 六七九叺▲白米四斗入 一、八九三叺 五斗入 四〇叺 正租叺八 四五、六〇〇叺 俵入 二九〇俵▲大豆 五七一一叺▲大麥 七八九叺▲籾白米 一、三一六叺▲粟 五、五三三俵▲黍 四、二〇七叺▲蕎麥 五〇〇叺▲綠豆 一〇〇俵▲糯米 一六一叺 一、三八〇俵(豪丸)

米期 強硬裡에 納會

前場反高

市場六感

米……月末戰은 平凡하나 強調不失▲來九月市勢는 果如何? 그만하면 期待量 가져도 조흘것▲成都事件은 排日根絕의 動機로보아 悲觀할것업고 電力問題를 비롯한 國策問題도 圓滿解決을 보게되어 危機가 업서질것▲그러면 남는것은 財政인푸레 期待로 特히 東新의 反動高活躍을 期하게될것으로 보아를가?

米……南朝鮮地方은 年年의 風水의 被害를 가릅하나 그住民들의 安居할곳은 果然어데며? ▲가난한집에 子息이 많다는것처럼 水害와 颱風이 朝鮮으로만 侵入하니 本年의 凶作도 亦是豫想 ▲龍山驛挾壓에서 白米一萬五千俵를 買入하엿다고 此亦 雇材의 一助이엇다 ▲期近에 入하는 中限은 다시 五十錢臺로의 反高를 보면 明一日에 發會할 新甫十一限도 下鞘發生한後의 反高를 할것이다

各地期米後場休會

各地期米市場은 月末로 例月과如히 今日後場은 休會이다

休會市場一束

▲大阪三品市場(綿絲棉花人絹)▲大阪砂糖市場▲福井人絹市場▲東京人絹市場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中 限 ◆買方 [illegible]

各地正米

堂島前場賣買

◇賣方=朝鮮側地場軟派北國側築 京側

◇買方=地場遊資均政地方側

京城反撥 賣出人氣弱 期米高를 移하야 氣配一擧二十五錢反撥이엇다 ㊀三等三二、一〇 四等三一、一〇 一等白米三三、四〇

仁川昂進 期米高를 移하야 當用側의 買物이 比較的順調로 進하고 產地高와 相俟하야 氣配廿五錢昂進이엇다 ㊀三等三二、〇 四等三一、一〇 一等白米三三、七〇

釜山同調 期下米에 壓迫되여 料準備는 極力離擴되나 精米原어 高價는 繼續하야 月末이나마 商談이 比較的 적엇다 ㊀三等三一、七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三三、八〇

大邱引緩 月末關係로 取引은 傍觀되고 期米堅調에 不拘코 氣配十錢引緩이엇다 ㊀三等三一、一〇 四等三〇、八〇 一等白米三三、三五

群山下游 入荷皆無와 月末關係로 買氣가 업고 市況은 閑散이나마 產地强調와 期米頑強으로 底堅保合이엇다 ㊀三等三一、七五 四等三一、六〇 一等白米三四、〇〇

木浦保合 來月待로 雙方이 沈默이오 場面은 休商同樣이엇다 ㊀三等三一、〇〇 四等三一、七〇 一等白米三三、〇〇

金.銀.白金
京城德力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買入 送料無料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234

米 仁川 [illegible]商店
株 京城 金益證券株式會社

株式 (卅一日)

◆朝取短期 / ◆東京短期 / ◆東京現株 / ◆朝取短期賣買高 / ◆新定代引日步 / ◆大阪短期 / ◆大阪短期取組 /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卅一日)

◆朝取期米 / ◆朝取期米賣買高 / ◆大阪期米 / ◆木浦期米 / ◆群山期米 / ◆釜山期米 / ◆大邱期米 / ◆東京期米 / ◆日本各地期米 / ◆大阪期米取組 / ◆大阪正米標準價 /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全國 (卅一日)

◆海外經濟 /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 ◆京城手形交換高 / ◆東京金利 / ◆大阪金利 / ◆對外爲替 / ◆金買入價 / ◆東京市中金銀價 / ◆京城市中金銀價 / ◆京城正米 [illegible]

商品 (卅一日)

◆仁川正米大豆 / ◆京城雜穀 / ◆京城綿米布市況 / ◆滿洲商況 / ◆大連特產市況 / ◆日本麥粉市況 / ◆京城鋪冲價 / ◆大阪人絹現物 / ◆各地正租市勢 / ◆海外砂糖 / ◆對外麥 [illegible]

懸賞

廣告圖案懸賞募集

本店에서 左記要領에 依하야 廣告圖案을 懸賞募集함

一、廣告의種類 新聞廣告(一段二寸六分) [illegible]

二、廣告圖案에表現될要項 [illegible] 仁川海岸町三丁目 [illegible]

三、募集期限 昭和十一年九月十日까지 [illegible]

四、懸賞額 一等五十圓一人、二等二十圓一人、三等金十圓一人 [illegible]

五、發表 昭和十一年九月廿五日以後에 [illegible]

朝鮮取引所米豆取引員
仁川府本町三丁目
東 趙俊鎬取引店